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bostonkorearealty.com  
 Diane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 보스톤 '김치엄마' 들을 아십니까

육아와 엄마들의 네트워킹  
 두마리 토끼 잡아  
 아이들에게는 놀이를 통한  
 한국문화 교육,  
 동시에 엄마들 끈끈한  
 네트워크 형성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아이에게 놀이 친구를 만들어주면서 더불어 한국문화도 가르쳐주고, 엄마들간의 끈끈한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는 모임인 '김치엄마들' 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치엄마들' 은 2세에서 6세 미만의 아이를 둔 한인 엄마들의 모임으로 주로 브루클라인, 뉴튼, 보스톤 지역에서 한식 파티(Potluck), 한글 동화 읽기, 소풍, 도서관 영화 상영 등의 이벤트를 함께 한다.

'김치엄마들' 을 시작한 주부 김새봄 씨는 한인 입양인으로 중국인 남편과 결혼해 현재 3살과 10개월의 아이들을 두고 있다. 보스톤 한인 사회와의 친분을 쌓고 싶었던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는 한국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다" 는 김 씨는 친한 한인 엄

마 한 명과 함께 이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김치엄마들' 의 모임은 현재 21명의 한인 주부들이 가입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현재 8명 가량이 가장 활발하게 주축이 되어 모임을 이끌고 있다. '김치엄마들' 의 2월 행사로는 보스톤 미술관 구정축제 방문, 도서관 스토리텔링 및 어린이 영화 상영 참석, 엄마들의 저녁식사 등이 기획되어 있다.

"결혼 전에는 개인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었다" 는 김 씨는 한국인과 한인 2세가 일대일로 만나 언어와 문화에 대해 나눌 수 있는 한미문화교류(KACEL) 모임을 만들었을 정도로 한국문화의 열렬한 팬이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난 뒤에는 관심사가 살짝 달라졌다. 이어 "한인 모임은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싶었다" 고 전했다.

▶▶2면으로 계속



우노(UNO)에서 모인 보스톤 한인 '김치엄마들'

### 사진 뉴스



전명진 판사 취임 선서. 지난 23일 라스베리 보스톤 지방법원에서 데이비드 웨인가르텐 수석판사의 주재하에 전명진 판사가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지금껏 전명진 판사가 매사추세츠 최초의 한인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인 판사가 한 명 더 재임 중인 것으로 판명됐다. 그는 두번째 한인 판사가 됐다

## 내가 눈 치운 주차공간 48시간 동안 내꺼

폭설 비상상태 해지 48시간내 개인 주차공간 표시해도 돼  
 겨울나기 필수 아이템 및 폭설대비 요령 소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이틀간 매설계 몰아친 폭설로 눈이 2피트 이상 쌓여 주차공간 확보가 힘들어졌지만 폭설 비상

상태 해지 후 48시간 동안은 본인이 눈을 치워 만든 주차공간에 물건을 놓아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누군가가 힘들게 파 놓은 주차공간에는 주차하지 않는 것이 에티켓이면서 관례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 심심찮게 이웃간의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싸움이 번져 서로의 차를 망가뜨리거나 때로는 ▶▶5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1불의 행복! 대박이벤트!!  
 지금, IACE 를 통하여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시면, 체류기간 동안,  
 인천 ⇄ 도쿄 나리타 항공권  
 + 동경 2박3일 호텔숙박권  
 이 믿을수없는 가격,  
**\$1에 모십니다!**  
 Japan. Endless Discovery. japantravelinfo.com  
 \*미국과 인천공항의 왕복편은 지정된 항공사의 티켓입니다. \*도쿄 내 호텔: 이코노미 호텔 기준 \*예약상황과 좌석상황에 따라 프로모션 가격에 변동이 생길수 있습니다

**IACE TRAVEL** Korean Line  
 CONNECT TO THE WORLD  
 24H ONLINE BOOKING  
 WWW.IACE-KOREA.COM  
 1-866-619-4223  
 info@iace-korea.com  
 3655 Torrance Blvd, Suite 100, Torrance, CA 90503

**NEWSSTAR Realty of Boston**  
**에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2013년, 2014년 연속 2년  
**뉴스타 부동산 미주전체 1위**  
 풍부한 경험과 실적이 증명합니다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Welcome, **TBO**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 예약  
 보충전화 617.955.9112  
 직접 연락하세요

무제한 시청 월 \$37.99



시인 윤동주 70주년 추모 공연이 오는 14일 성요한교회에서 열린다

## 윤동주70주기 추모공연 보스톤서 열려

서시, 별 헤는 밤 등 14개 대표시곡 붙여 노래로 재탄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독립 운동가이자 시인인 윤동주의 70주기 추모공연이 오는 2월 14일 토요일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열린다.

윤동주의 시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한인 청년 밴드 '눈오는 지도(snowing map)'의 이름은 "순이(順伊)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함박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창 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로 시작하는 윤동주의 시 '눈오는 지도'에서 따왔다.

2005년 결성된 '눈오는 지도'는 버클리 음대, 맨해튼 음대, 뉴욕주립대 등에서 음악을 공부했던 청년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스톤 공연에는 리더 겸 작곡가인 한은준(기타) 씨를 포함한 박수진(노래), 정제니(해금), 김성희(피아노), 김효영(베이스), 차승현(드럼) 등 6명이 공연에 나선다.

한 씨는 "전 세계가 비인간적인 전쟁의 광기

로 휩싸여 있던 2차 세계대전의 끝 자락인 1945년 2월 16일, 조선독립과 민족문화회지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감옥에서 만 27세의 나이로 죽어간 윤동주를 기리기 위해 추모공연을 마련한다"며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려 했던 이들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스톤에서 시작되는 이 공연은 뉴욕, LA, 서울에서도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윤동주 70주기 추모 공연은 아름다운 윤동주(이사장 이승중), 보스톤한인교회, 한미문화재단(KACF), 뉴욕장로교회, 까마귀스튜디오가 후원한다.

광고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snowingmap@gmail.com 혹은 201-835-8692로 하면 된다.

### 행사일정

일시: 2015년 2월 14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보스톤한인교회 ECC 채플(32 Harvard Street, Brookline, MA 02445)

bostonkorean@hotmail.com

## 한인 엄마와 한인 2세 엄마, 서로 다른 문화도 나눌수 있어

▶▶1면에 이어서

실제로 '김치엄마들' 모임을 통해서 2세 아이들 또한 한국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다. 집에서 중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아이가 어느새 동요 '곰 세마리'를 부르고 두 아이가 낫을 놓고 '뽀로로'를 시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 씨는 마냥 뿌듯하다.

'김치엄마들'은 한인 엄마들과 미국에서 자란 2세 엄마들이 적절히 섞여있다. 자라온 배경과 언어, 문화가 다른 엄마들이 모였지만 서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아 좋다고 김 씨는 말한다.

"한인 엄마들은 2세 엄마들로부터 미국 문화를 배운다. 아이의 교사한테는 어떤 선물이 적절한지, 야외 바베큐 파티에는 어떤 음식을 가져야 하는지 등의 생활 팁이나 보스톤에서 적응할 수 있는 유용한 생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반대로 2세 엄마들은 한국어나 한식 레시피 등을 배운다." 이렇듯, 아이들뿐 아니라 엄마들 사이에서도 돈독한 우정이 생기는 것이 김 씨가 말하는 '김치엄마들'의 목표다.

김새봄 씨가 그리는 '김치엄마들'은 서로 도움이 되고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즐거운 모임이다. 아이들의 돌잔치나 생일파티에 서로 가주고, 장난감도 빌려주면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서로 지켜보는 것이다.

"아이들과 엄마들의 네트워크가 은하수

처럼 넓게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김 씨는 "영어를 잘 못하는 엄마들도 언제나 환영이다. 아이들끼리, 그리고 엄마들끼리 문화와 언어를 넘나드는 친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치엄마들'에 관심있는 한인 주부는 소셜 네트워킹인 미트업(www.meetup.com/KMAKBoston/)를 통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가입 승인을 받으면 누구나 '김치엄마'가 될 수 있다.

김치엄마들 외에도 보스톤에는 아이들 놀이친구를 목적으로 한 엄마들의 모임들이 크고 작은 규모로 많이 형성되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김치엄마들' 모임을 통해 아이들도 한국 놀이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Threading Threading
-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롱 펌 Iron Perm
-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중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 한인 스타트업 블로그 비플 “한인들의 징검다리 되고파”

성공적인 창업 케이스, 심층인터뷰 및 유용한 팁 제공

한인사회, 어린이에게 비즈니스 및 과학기술 접할 환경 조성해줘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스타트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창업의 길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한인 창업 블로그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보스톤 피플도 비즈니스 피플도 될 수 있는 ‘비플(B\*ppl)’ 블로그에는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 뛰어들어 온 몸으로 경험했던 솔직담백한 사연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다. 창업 준비자들과 창업자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돕고, 창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 블로그는 이미현 전 총영사관 경제통상 및 기술정책연구원이 오랜 시간 동안 노력과 애정을 담아 만든 프로젝트다.

이 씨는 비플을 통해 ‘손으로 만져서 시간을 아는 시계’ 이원 타임(Eone Time)의 창업자 김형수 씨와 온라인 수학 컨텐츠를 담당하는 에듀텍 스타트업 노리(KnowRe)의 김서준 부대표, 모바일 광고기술 플랫폼 기업인 아쿠토(Aquto)의 창업자 수

지 김 라일리, 이노베이션 경험 컨설팅 회사 더멤(The MEME)의 이해진 대표를 인터뷰했다.

이 씨는 “보스톤은 스타트업을 위한 최적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첨단기술과, 생명공학 등 여러가지 인프라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보스톤과 같은 특별한 곳에서 ‘숨겨진 보석’ 과 같은 창업자들을 만나 행복하다” 는 이 씨는 이들의 만남을 하나하나 간직해 미래 창업자들과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포스텍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MIT 슬로언 경영대학원을 거친 이 씨는 지난해 8월까지 약 3년간 기술정책 관련 총영사관 업무를 담당했다. 현재는 중단된 보스톤 지역 첨단산업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3년 제 1회 창조경제 포럼을 기획하는 등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 그런 그녀는 총영사관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오묘하다” 라는 표현을 했다.

영사관을 그만두게 된 것도 두 아이의 출산과 겹쳐 풀타임을 고민하던 시기와 딱 맞아 떨어졌고 무엇보다 영사관에서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커리어의 꿈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중요한 위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정부기관의 입장에서 스

타트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 는 이 씨는 늘 하고 싶었던 일,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시작했다. “지금은 비록 작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비플의 궁극적인 목표” 라고 전했다.

보스톤 한인 사회도 최근 몇 년간 크게 변했다고 이 씨는 조명했다. 총영사관 주최의 창조경제포럼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청년들을 위한 스타트업 관련 행사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이 씨는 “보스톤의 한인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첨단 기술과 비즈니스 경제를 익히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 “한국 문화나 한국어 등의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인들이 함께 협업하며 미국 주류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훈련도 중요하다” 고 본다” 는 것이 이 씨의 말이다.

한편, 너나 할 것 없이 창업을 꿈꾸며 무작정 뛰어드는 한국의 ‘창업 열풍’ 에 이 씨는 안타까움과 기대를 동시에 나타냈다. “한국은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이 미국처럼 탄탄하게 조성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정규직과 비정규직, 불안정한 경제 등의 다양한 문제가 만연하다.

남들이 하나까 따라 하는 일시적인 추세가 되 어버릴까봐 걱정이 된다” 고 전했다.

하지만 창업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청년들이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다는 이 씨는 “스타트업은 한 개인이 경제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젊은이들이 도전해 볼 만하다” 며 스타트업을 고려하는 청년들을 격려했다.

이 씨는 마지막으로 “창업은 이민과 비슷하다. 근본을 송두리째 뽑아서 옮겨 심는 듯한 작업으로 실패할 리스크도 많고 그만큼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하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이다” 라고 말했다.

최근 그녀는 비플 블로그에 매진하



비플 프로젝트를 통해 미주내 한인 창업자들을 인터뷰 하는 이미현 씨

며 뜻을 함께 하는 사업가와 보스톤 지역의 민간주도형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기획하는 중이다.

스타트업에 대한 한인 창업자들의 솔직하고 담담한 이야기는 비플 블로그(bppblog.com)나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bpplstory)를 통해 볼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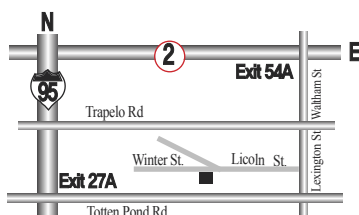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 SAT Plus

##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ptember 6, 2014

Class	Time
PSAT / SAT I Prep (Grade 11)	9:00 AM – 11:00 AM Saturday
PSAT / SAT I Prep (Grade 10)	11:30 AM – 1:00 PM Saturday
READING / MATH (Grade 9)	1:30 PM – 3:00 PM Saturday
SAT I Prep (Grade 12)	4:00 PM – 6:0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3: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 패트리어츠 출정식, 미국 최고의 팬 한자리에 모여

시애틀 시호크스와 슈퍼볼 결승전 2월 1일 아리조나서 열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슈퍼볼을 앞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풋볼 팀이 지난 26일 월요일 오전 11시 시청 광장에서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가졌다.

눈폭풍을 앞두고 닥친 매서운 추위와 칼바람에도 수 천명의 패트리어츠 팬들은 광장에 모여 선수단에게 열띤 지지와 환호를 보냈다. 팬들은 '두 유어잡(Do Your Job)' 에 이어 '피니쉬 유어 잡(Finish Your Job)' 등의 피켓을 들고 슈퍼볼 우승을 기원했다. 추위도 잊게 하는 흥분의 출정식이 30분가량 진행되었다.

마틴 월시 시장은 코트를 벗어 안에 입고 있던 탐 브래디 저지를 보이며 "우리는 우리의 패트리어츠를 사랑한다" 고 외쳐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마지막으로 쿼터백 탐 브래디가 나오자 수 천명의 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팬들을 겨우 진정시킨 브래디는 "굉장히 기쁘다" 며 "패트리

어츠 팀으로서의 굉장한 성취가 아닐 수 없다" 고 전했다.

한편, 디펜시브 라인맨 빈스 윌포크는 "우리는 미국 내 최고의 팬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제 한 팀만 더 해치우면 우승이다" 라며 팬들의 성원에 답했다.

이외에도 패트리어츠 구단주 로버트 크레프트와 빌 벨러치 감독, 각 팀의 주장인 댄 코넬리, 매튜 슬레이터,

데브 맥코티가 등장해 슈퍼볼에 대한 각오를 밝히며 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이날 출정식의 진행은 패트리어츠 야나운서 존 루크가 사회를 맡고, 치어리더단과 마스코트 팻 패트리어츠, 그리고 결승전의 패트리어츠 밴드가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한편, '디플레이팅게이트'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 출정식이 열린 것으

로 이에 대한 패트리어츠의 해명을 기대한 팬들도 일부 있었지만 출정식에서는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2월 1일에 열릴 시애틀 시호크스와의 슈퍼볼 결승전을 앞두고 있다. 출정식 직후 구단은 아리조나 글렌데일로 출발하기 위해 보스톤 로건 공항으로 향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좌)패트리어츠 출정식을 보기 위해 시청 광장에 모인 수천명의 팬들 (우) 출정식 전 분위기를 띄우는 패트리어츠 치어리더와 밴드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문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대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용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용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 회원사 | 세한연 | 회원사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 A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 폭설 비상사태 대비 위해 손전등 및 물 구비 전자기기 배터리는 미리 충전

▶▶1면에 이어서

끔찍한 범죄로까지 이어진다.

지난 28일 수요일, 알링턴에 거주하는 61세 여성이 분사식 제설기로 이웃인 60세 여성을 공격, 심한 열상을 입혀 이웃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던 중 이웃과 시비가 붙어 감정이 격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몇 해 전 사우스 보스턴에서는 제설작업 중 이웃을 칼로 찔러 살인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보스턴 시장들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지정했다:

“폭설 비상상태(Snow Emergency)가 해 지된 후 48시간 동안은 자기가 눈을 치운 주차 공간은 자기 것으로 표시해 놓을 수 있다.”

‘48시간 규정’은 지난해 사망한 메니노 전 보스턴 시장이 2005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마틴 월시 시장도 작년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눈이 오기 전부터 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48시간(월시 시장에 따르면 48시간 또는 며칠)만 유효한 것으로 해당 공간의 장기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차공간에 자전거, 상자, 의자 등을 세워놓아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호박, 냄비, 인형, 골프 가방, 변기 등의 재미있는 물건들이 길가에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한편, 오는 주말에 폭설이 한 차례 더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에 따르면 일요일 오후 시작되는 눈폭풍은 월요일까지 지속될



의자 등의 소품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매사추세츠 주민들

것이지만 현재 얼만큼의 눈이 쌓일 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기상국은 밝혔다.

### 겨울나기 필수 아이템

앞으로 다가올 폭설에 대비해 ‘보스턴 겨울나기 필수 아이템’을 소개한다. 무릎까지 오며 방수가 되는 겨울용 부츠는 필수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또 몇 차례의 폭설이 예보된 경우, 도보에 쌓인 눈까지 신속하게 치우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두껍게 쌓인 눈에도 끄떡없는 방수용 부츠가 가장 유용하다.

이외에도 집 앞이나 가게 주변의 눈을 치우기 위한 눈삽이나 제설용 빗자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눈을 치우지 않을 시 상당한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눈이 얼기 전에 미리 치우는 것을 권장한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제

설 벌금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

### 폭설 대비 요령

폭설이 지속되는 경우 보스턴 일부 지역은 전기가 끊길 가능성이 높다. 비상사태를 대비해 손전등과 보조 배터리를 구비해 놓는 것을 권장한다. 물이나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음식, 빵 등을 충분히 사다 놓는 것이 필요하다.

휴대폰이나 랩탑 등의 전자 기기는 평소 잘 충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전기가 끊길 시에는 휴대폰 충전기도 유용하게 쓰인다. 심한 폭설로 장기간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그동안 보고 싶었던 드라마나 영화를 미리 다운받아 놓는다면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스노우 데이를 만끽할 수 있겠다.

dyoo9146@bostonkorea.com



## 일요일까지 눈 두 차례 더 내릴 듯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앞선 데 덮친다. 일부 지역 사상 최대의 눈이 내린 매사추세츠 지역으로 앞으로 두 차례의 폭설이 다시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미 기상청이 밝혔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폭설 대신 최저 화씨 0도까지 이르는 강추위가 이어지며 목요일 자정 이후부터 금요일까지 1-4인치 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목요일 눈은 강한 바람과 함께 눈을 흠날리므로 시야가 나빠지는 등 금요일 출근길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금요일 밤 눈이 잦아들지만 일요일 밤 다시 폭설이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기상관들은 일요일 밤 폭설 또는 비를 예측하는데는 동의하지만 정확히 어떤 종류의 눈이 얼마나 쌓일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주말까지의 눈은 현재 극히 적은 도심의 주차 공간을 더욱 적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http://www.drfrankshin.com)

#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턴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 세계의 와인이 한 자리에, 보스톤 와인 박람회



CELEBRATING WINE, FOOD & CULTURE  
FEBRUARY 14-15, 2015  
SEAPORT HOTEL & WORLD TRADE CENTER  
BOSTON, MASSACHUSETTS

877-946-3976  
wine-expos.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의 와인 박람회가 2월 14일과 15일 시포트 월드 트레이드센터에서 개최된다. 와인 애호가라면 놓칠 수 없는 보스톤의 이색적인 행사로 매년 2만여명이 몰리는 대형 이벤트다. 특별히 오는 31일까지 \$10 할인이 적용되니 서둘러 예약하는 것을 추천한다.

세계 300여 곳의 와인 농장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2천 가지 종류가 넘는 와인을 테이스팅할 수 있다. 최고급 빈티지 와인도 맛볼 수 있으며 더불어 보스톤의 최고의 레스토랑 셰프 20여명의 요리를 시식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각종 세미나와 와인 관련 상품의 전시회가 함께 열린다. 발렌타인 데이와 겹치는 이벤트로 미리 티켓을 예약해 부부 혹은 커플이로

맨틱한 주말을 즐기기를 좋아한다.

### ▶와인 테이스팅 티켓 구입

와인 맛보기 일반 입장권인 그랜드 테이스팅(Grand Tasting)은 14일 토요일에는 \$99, 15일 일요일은 \$89이다. 이를 내내 입장할 수 있는 주말 패스는 \$149이다. 31일까지 유효한 \$10 할인을 적용 받으려면 다음 링크(<https://www.eventbrite.com/e/boston-wine-expo-2015-tickets-13522721825?discount=SNOWSAVE>)를 통해 입장료를 구입하면 된다.

그랜드 테이스팅 외에도 라운지가 따로 마련되어 코트 체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VIP 익스피리언스(Experience)가 있다. 업그레이드 와인잔으로 테이스팅 할 수 있는 VIP 입장권의 가격은 14일은 \$145이며 15일은 \$135이다.

한편, 빈트너스 리저브 라운지(Vintner's Reserve Lounge) 입장권은 그랜드 테이스팅이 포함되어 있다. 추가적인 서비스로는 별도의 파티룸에서 공연을 즐기며 와인과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빈트너스 예약자에 한해서 리테일 가격이



\$75 이상인 와인만을 제공한다. 빈트너스는 14일과 15일 모두 \$225이다.

이 외에도 세계의 와인과 술에 대한 각종 세미나가 \$25에서 \$95까지 다양하게 제공된다.

와인 박람회에는 21세 이상의 성인만 참석할 수 있으며 어린 아이들은 입장이 불가하다. 입장권 구입은 와인 박람회 홈페이지([www.wine-expos.com](http://www.wine-expos.com))에서 할 수 있으며 결제 시 약 \$5 정도의 수수료가 붙는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다음 번호(617-385-5368)로 문의하면 된다.

### ▶유명 셰프의 요리 시식

올해 와인 박람회에서는 태번 로드, 블루 진저, 더 월드 이즈 마인 오이스터, 바 볼루드 등 보스톤 및 뉴잉글랜드 지역 유명 레스토랑의 셰프들이 시식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호텔 주방장, 요리 프로그램의 셰프 등이 참석해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일본식 요리를 선보인다. 일부 셰프는 요리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며 레시피를 알려주기도 한다.



### ▶세미나 개최

세계적인 와인 및 술, 초콜릿, 치즈에 관련된 주제의 세미나 40여개가 양일에 걸쳐 열린다. 특히 와인에 관해서는 초보자와 베테랑은 위한 세미나가 다양하게 열리며 오피스 윈 와이너리의 마이클 실라치 와인 메이커가 주 강사로 초청된다.

1시간짜리 세미나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진다. 자세한 스케줄은 와인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기타 전시품목

와인 박람회에는 와인과 맛있는 음식, 세미나 말고도 볼거리가 풍성하다. 다양한 와인 악세사리, 냉동 와인 랙, 유리잔 및 주병이 전시되며 흥미로운 와인 아트도 전시될 예정이다.



### 행사일정

일시: 2015년 2월 14(토) 15일 오후 1시~5시 (세미나는 오전 11시부터)

장소: 시포트 호텔 & 월드 트레이드 센터 (Seaport Hotel & World Trade Center)  
200 Seaport Blvd, Boston, MA 02210  
dyoo9146@bostonkorea.com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만길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여러분의 손길이 징검다리가 됩니다”

## 국제선 보스톤 지회 보은 만찬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국제선 보스톤 지회(국제 결혼 가정선교회, 회장 이은주)가 지난 25일 일요일 오후 지역 후원자 및 이사들을 초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만찬을 대접했다.

행사장에는 안병학 전 동북부 한인 연합회장을 비롯해 유영심 노인회장, 김성혁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장 등 단체장과 후원 이사들 70여명이 참석해 국제선 보스톤 지회를 격려하며 힘을 실어 주었다.

국제선 보스톤 지회는 이날 신임회

장으로 선임된 이은주 씨와 신임 임원진을 소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은주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인들의 후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나그네를 건네 주는 징검다리처럼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이 곳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셨고 그로 인해 집 없이 떠도는 가난한 이들 또한 도울 수 있었다” 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한 “점점 핵가족화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잠시나마 이렇게 일손을 멈추고 소중한 분들과 훈훈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하다” 고 덧붙였다.

이어 유정에 평화의 마을 건립회장은 평화의 마을 건립상황을 보고하며 그간의 후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은주 신임회장은 임기중 지회 활동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할 뜻을 밝히며 “월례 회의를 탄실히 수행하는 한편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킬 것” 이라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2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나눔의 시간을 갖게 하고 국제선이 지향하는 사회봉사 정신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뜻도 밝혔다.

국제선의 신임 임원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은주, 부회장: 박은희, 총무: 황진희, 회계: 김금련, 김인숙, 서기: 김인숙, 선교부장: 김미나, 봉사부장: 채숙이, 이상준, 이숙희, 홍보부장: 양미경, 회계감사: 이경자

bostonkorean@hotmail.com



국제선 보스톤지회 신임 임원진 보은 행사에 참석한 지역 후원자들

## 민주평통 황우성 간사 대통령 표창 전수식 개최

### 평화통일, 러시아 포함한 한미중일 협력관계 중요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회장 김성혁) 소속 황우성 간사에 대한 대통령 표창 전수식이 지난 23일 금요일 보스톤 총영사관에서 열렸다.

황 간사는 “굉장히 많은 격려와 조언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상에 합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민주평통을 언급하며 “사적인 것을 챙기기 바쁜 어린 나이에 조금이나마 공적인 일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단체” 라며 감사를 표했다.

김성혁 민주평통 보스톤 협의회 회장은 “(황 간사는) 러시아 외교에 있

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재로서 민주평통의 간사로 귀중한 업적을 남겼기에 정부 표창을 받게 되었다” 고 전했다.

표창 수여를 진행하고 아울러 축하 인사말을 전한 엄성준 총영사는 “뉴잉글랜드 한인회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한 민주평통과 황 간사의 기여에 대한 미국 정부가 이 표창을 수여하게 되었다” 며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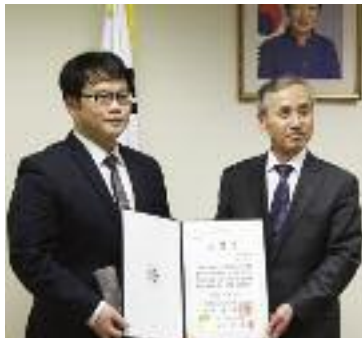
엄 총영사는 “새해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적인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며 러시아를 포함한 한미중일의 외교적인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한편, 황 간사는 아침에 직접 붓글씨로 작성한 기도문과 ‘대한민국’ 서예 글귀를 선보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이날 정부 표창 전수식은 이어진 기념사진 촬영과 준비된 다과로 마무리되었다.

선교사였던 부모를 따라 1992년부터 12년간 사할린과 모스크바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황우성 간사는 대 러시아 및 대북 전문가로서 모스크바 대학 화학과 부교수를 역임했다.

dyoo9416@bostonkorea.com



민주평통 보스톤 협의회 황우성 간사의 대통령 표창 전수식이 지난 23일 열렸다

## 서울대학교 국제하계강좌 설명회 개최

### 설명회 참석 시 지원료 면제 및 수업료 할인 혜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학교 국제하계강좌 설명회가 오는 2월 15일 일요일 오후 5시 보스톤 렉싱턴 성요한교회에서 개최된다.

국제하계강좌 총괄담당자가 프로그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설명회 참석 시 지원료 면제와 수업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2007년부터 해외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여름 프로그램인 서울대학교 국제하계강좌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Summer Institute, SNU ISI)를 운

영해오고 있다.

지난 8회 동안 2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국제하계강좌를 통해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수강했으며, 올해는 9회 째를 맞아 아시아학과 한국학에 더욱 더 큰 비중을 둔 29개의 교과목과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프로그램 수료생은 서울대학교 학점과 수료증을 취득하게 된다.

국제하계강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권신애 담당자 (nakedangels@snu.ac.kr)에게 하면 된다.

### 행사일정

일시: 2015년 2월 15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 렉싱턴 성요한교회 (2600 Massachusetts Avenue, Lexington, MA 02421)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 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올스톤 토토가, 외국 학생들도 토요일 밤 후끈

보스톤서 90년대 한국 가요의 전성기 맛본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보스톤 아시안 커뮤니티의 사교 이벤트를 담당하는 스카이 엔터테인먼트(대표 진 정)의 '토토가 케이팝 뮤직 나잇' 행사가 오는 31일 토요일 올스톤 크리스탈 레스토랑에서 열린다.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던 무한도전 특집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는 보스톤 한인 커뮤니티 역시 뒤흔든 듯 하다. 스카이 엔터테인먼트의 진 정(Jin Chong) 대표는 수많은 보스톤 한인 학생들이 90년대 한국 가요를 컨셉으로 한 이벤트를 원했다고 전했다.

정 씨는 "주로 젊은 대학생 층을 위한 이벤트를 기획하는 반면 이번에는 특별히 70~80년생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유니크한 행사로 준비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드레스 코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에 맞게 90년대 복장으로 차려입고 싶다면 적극찬성"이라며 권장했다.

이날 행사는 HOT, 터보, 지누션, 김건모, 핑클, S.E.S, 쿨 등 90년대를 장식한 인기 가수들의 음악으로 꾸며진다. 디제이 지아노, 디제이 보스 등 뉴욕에서 활동하는 유명 디제이가 초청되며 특별히 보스톤에서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창업주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라는 것이 정 씨의 말이다.

스카이 엔터테인먼트는 정 씨가 2년 전 동료 스티브 권, 줄리아 박씨와 함께 만든 단체다. 정 씨는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외국인들과 쉽



스카이 엔터테인먼트가 아시안 청년들을 위해 기획한 '토토가 뮤직 나잇'이 오는 31일 올스톤에서 열린다

게 어울리지 못하는 한인을 위해 만들게 되었다"며 "현재는 한인 학생들은 중심으로 중국, 베트남 등의 아시아권 학생들에게도 놀이문화와 장소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토토가 행사를 앞둔 정 씨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한인은 누구나 환영이다"라며 "한 달 반 전부터 준비한 행사에 많이 참석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토토가 케이팝 뮤직 나잇' 행사 티켓은 당일 장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기타 문의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skyentertainment617) 혹은 정 대표(617-921-8999, sky\_en-

tertainment@aol.com)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스카이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9일 구정파티를 열어 보스톤 대학, 노스이스턴 대학, 웰슬리 대학 등에서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매주 토요일 다양한 컨셉의 파티가 기획되며 각종 행사에 대한 정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1월 31일 토요일 밤 10시  
장소: 크리스탈 레스토랑(Crystal Restaurant)  
20 Linden Street, Allston, MA 02134  
dyoo9146@bostonkorea.com

# H마트 고국통신판매, 설맞이 준비 한창

한우, 과일, 한과, 건강식품 등 인기선물세트15% 할인

물세트는 육질이 좋은 암소 한우와 향긋한 향이 일품인 생 표고버섯, 키조개 관자로 구성되어 기존의 고국통신 선물세트와 차별화한 점이 눈에 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월 19일로 다가오는 고유 명절인 설을 위해 H마트는 '한아름 고국통신판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8일 밝혔다.

한국의 가족 혹은 지인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는 '한아름 고국통신판매'에서는 "명품한우, 최상급 LA갈비, 굴비/전복, 과일, 한과, 꽃, 건강식품 등 고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선물세트를 최대 15% 할인 판매한다.

특히 올 설에는 차례상에 올릴 수 있도록 배, 사과, 단감, 밤, 대추로 구성된 조율이시 과일세트와 장흥농협 특산물로 구성된 삼합 프리미엄 암소 구이 선물세트를 할인 판매한다. 장흥농협 삼합 선

한아름 고국통신은 100% 품질보증제를 실시해 배송 받은 상품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주내 고객들이 안심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마케팅 부서 측의 말이다.

배송은 서울지역은 주문부터 배송까지 평균 1~2일, 그 외 지역은 3~4일 정도가 소요된다. 설 연휴 및 주문량의 증가로 인해 주문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설 이전에 배송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2월 13일까지 주문하는 것을 권장한다.

주문은 벨링턴 및 캠브리지 매장이나 H마트 웹사이트(www.hmart.com) 혹은 전화(1-800-648-0980)로 가능하다. bostonkorean@hotmail.com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Cell 617.694.0985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 눈, 어느 타운에 가장 많이 내렸나

최대 36인치(91.4센치) 어번 등 4개 타운에 쏟아져 우스터도 34.5인치로 사상 최고 기록



보스톤은 총 24.6인치의 눈이 내려 1월 중 최고 적설량을 기록했으며 역사상 총 6위의 적설량을 보였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15년 첫 블리자드가 완전히 보스톤 지역을 벗어남에 따라 보스톤 소재 미 기상청과 톤톤 소재 미 기상청은 공식적인 적설량 기록을 발표했다.

이번 눈폭탄의 선두주자는 어번과 루렌버르그, 허드슨, 웨스트포드로 총 36인치(3피트)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그 다음은 우스터 공항에 쌓인 34.5인치로 우스터 사상 최고 적설량 기록을 갈아치웠다. 보스톤도 로건 공항 측정기에 쌓인 눈이 24.6인치로 1월 블리자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역대 순위로는 지난 2013년 24.9인치에 약간 뒤져 6위를 기록했다.

밀튼 소재 블루힐 기상관측소는 타운 사상 1885년 이래 두번째 많은 30.8인치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적설량은 1969년 2월 24-28일까지 눈으로 38.7인치를 기록했다.

다음은 이번 1월 27일 잦은 2015년 블리자드의 최종 적설량이다.

Auburn	36.0"	West Boylston	33.5"	Swampscott	27.1"
Lunenburg	36.0"	Dracut	33.0"	Peabody	27.0"
Hudson	36.0"	Tyngsboro	32.5"	Hyannis	27.0"
Westford	36.0"	Holden	32.0"	Pepperell	26.5"
Worcester	34.5"	Dunstable	32.0"	Georgetown	26.5"
Clinton	34.1"	Methuen	31.5"	Braintree	26.0"
Acton	34.0"	Lowell	31.0"	East Freetown	26.0"
Littleton	34.0"	Shrewsbury	30.9"	Bolton	26.0"
Chelmsford	33.8"	Milford	30.7"	Tewksbury	25.6"
Framingham	33.5"	Whitinsville	30.0"	Bedford	25.0"
		Fitchburg	30.0"	Nahant	25.0"
		Milton	29.7"	Boston	24.6"
		South Boston	29.0"		
		North Grafton	29.0"		
		North Reading	29.0"		
		Wakefield	29.0"		
		Winchester	29.0"		
		Leominster	29.0"		
		Sharon	29.0"		
		Groton	29.0"		
		West Harwich	28.5"		
		Boylston	28.0"		
		Kingston	28.0"		
		Ipswich	28.0"		

블리자드란 무엇인가  
미 기상청이 규정하는 블리자드란 눈이 가시거리를 4분1마일(400미터) 이내로 줄이고 약 3시간 이상 바람이 35마일 이상 부는 기상 조건을 말한다. 마쉬필드는 블리자드 상황을 14시간, 하이에니스는 13.2시간, 맨터킷은 11시간, 보스톤은 9시간을 기록했다. 블리자드는 27일 화요일 오전 9시 54분에 종료됐다.  
hsb@bostonkorea.com

# 보스톤 마라톤 결승선 눈 치운 사람 찾기 떠들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15년 블리자드의 화제 중 보스톤 마라톤 결승지점 눈을 치운 사람을 찾기 위한 인터넷 사냥도 그 핵심이었다.

27일 오후 보스톤의 찰스마크 호텔에 투숙해 있던 필립 힐만은 호텔 창밖을 내다보다 '보스톤 스트롱'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그가 찍어 트윗한 사진을 보면 한 사람이 보스톤 마라톤 결승선 부분을 삽으로 치우는 장면이었다. 이로부터 트위터와 인터넷은 그가 누구인지 밝히는 사냥작업에 곧장 돌입했다.

힐만은 당초 눈을 치운 사람이 찰스마크 호텔의 한 종업원으로 생각했으나 보스티노(BostInno)에 따르면 호텔 직원들은 이 사실을 부인했다. 28일 오후 보일스턴 스트리트 소재 레스토랑 백베이스 셉크립의 한 직원은 마라톤 결승선의 눈을 치운 장본인이 레스토랑의 바텐더인 크리스 로디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로디니가 레스토랑

입구 눈을 치우는 것을 자원했으며 그와 더불어 결승선까지 치웠다고 밝혔다.

울스톤에 거주하며 다섯 차례나 보스톤 마라톤에 직접 참가해서 뛰었던 크리스 로디니는 "마라톤에 참가해 이 결승선을 넘었을 때 그 감정은 단순히 도로 위에 페인트로 칠해진 결승선을 넘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마라톤이 내세우는 모든 것의 상징이다"라고 그가 이곳을 치운 이유를 밝혔다. 그런 결승선이 눈에 덮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서픽 대학을 졸업한 그는 장래 해양 생물학자를 꿈꾸고 있다. 그는 인터넷에서 자신을 찾는 것을 알면서도 나서지 않았으며 미스터리인 "그 사람"으로 불리는 게 좋았다고 밝혔다.

자신의 정체가 어떻게 밝혀진 것인지 의아해 했지만 그는 아마도 자신의 동료가 밝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hsb@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http://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  
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간	그룹 지도	개인 지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벨리치와 브래디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미국인 절반 이상  
패트리어츠 믿지 않아  
뉴잉글랜드에서만  
패트리어츠 지지 절대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미국인들의 과반수 이상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감독 빌 벨리치와 쿼터백 탐 브래디를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패트리어츠가 규정된 공기압력보다 낮은 풋볼을 사용한 것에서 비롯된 이른바 디플릿게이트와 관련한 설문 조사 결과다.

NFL 사무국은 콜츠를 상대로 한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패트리어츠가 전반에 사용한 12개의 풋볼 중 11개가 규정보다 공기압력이 낮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NFL 사무국은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패트리어츠가 의도적으로 풋볼의 공기압력을 낮추었는지, 누가 어떻게 낮추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디플릿게이트와 관련한 공식 기자회견에서 벨리치 감독은 “풋볼의 공기압력과 관련하여 설명할 것이 없다

디플릿게이트에 대해 뉴잉글랜드 지역과 나머지 미국 전체의 의견이 확실하게 갈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며 “코치 경력 전체를 통틀어 풋볼의 공기압력에 대해 누구에게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브래디 역시 “풋볼을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포츠 전문채널 ESPN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40%의 미국인들만이 벨리치와 브래디를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SPN은 “빌 벨리치와 탐 브래디가 AFC 타이틀 경기에서 어떻게 풋볼의 바람이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을 믿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응답자의 60%는 ‘아니오’라고 답

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 전체를 놓고 보면 벨리치와 브래디를 믿지 못하겠다는 응답이 60%로 훨씬 많지만, 지역별로 보면 매사추세츠 주를 포함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벨리치와 브래디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패트리어츠가 연고로 있는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패트리어츠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마치 뉴잉글랜드와 나머지 미국 전체가 대립하고 있는 양상처럼 보인다.

jsi@bostonkorea.com



## 패트리어츠 락커룸 보조원 경기용 풋볼 들고 화장실 들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락커룸 보조원이 경기장으로 향하던 도중 풋볼을 들고 화장실에 들렀던 비디오 증거자료가 나왔다고 NBC가 보도했다. NFL이 패트리어츠 락커룸 보조원을 이번 디플릿게이트의 용의자로 주목하고 조사중인 보도가 나오지 하루만에 또다른 폭로가 이어진 셈이다.

NFL의 한 정보에 따르면 이 보조원은 24개의 게임용 풋볼이 담긴 2개의 백을 들고 약 90초간 화장실에 들렀다 나왔으며, 패트리어츠 구단이 이 비디오증거를 발견해 이를 리그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NFL의 디플릿게이트 조사팀은 현재 외부 변호사인 테드 웰스와

NFL 부회장이인 제프리 패쉬가 공동으로 조사팀장을 맡아 패트리어츠의 공기압 낮은 공 사용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팀은 약 40명의 패트리어츠 풀, 파타임 직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패트리어츠 팀은 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패트리어츠 구단주 로버트 크레프트는 26일 패트리어츠가 어떤 NFL의 규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만약 패트리어츠가 의도적으로 풋볼의 공기압을 감압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NFL이 패트리어츠 구단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분노를 표시했다.

hsb@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정관장 최고의 명품 제품**  
**홍삼 추출액**

달여먹는 정성 그대로를 담았습니다.

엄선된 홍삼만 100% 사용하여 추출한 제품으로 홍삼 본연의 풍미를 느끼기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홍삼으로 매서운 한파 이겨내세요**

보스톤의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야외 활동이 줄고 실내 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온가족 정관장 홍삼제품으로 면역력도 지키고 떨어진 체력도 보강하세요!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MART**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1~2일 안에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 / \$100 이하 \$5 배송비

특별 이벤트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FREE



## 프로즌 패러디한 스노우데이 알림 비디오

ABC 아침 방송에서도 다뤄 타임 매거진도 관심 트윗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로드 아일랜드 프로비던스 소재 모세스브라운 스쿨이 27일 블리자드 스노우데이 휴교를 알리는 “휴교합니다(School Is Closed)” 비디오를 유튜브에 올려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프로즌의 랫잇고 노래를 패러디해 만든 ‘School Is Closed’ 비디오는 대부분의 지역 학교들이 자동 음성 전화 또는 이메일로 휴교 안내를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접

근으로 평가된다.

“95번 도로는 하얀눈으로 반짝이고 타이어 자국 조차 보이지 않네 (“The snow glows white on Route 95, not a tire track to be seen)”로 시작되는 이 비디오는 학교의 교장인 맷 글렌디닝 선생이 니트와 모자 스웨터를 입고 직접 출연해 노래를 부른다. “우리는 학생들이 등교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마 너무 비정당한 일이 될 것(We could make you come to school, but that would just be mean.)”이라며 천억덕스럽게 노래를 이어간다.

이 비디오는 타임 매거진이 리트윗을 하고 TV 프로그램 굿모닝 아메리

카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이 비디오는 모세스브라운 학교의 홍보담당 디렉터인 올랜 씨가 기획한 것이다.

이 학교는 이 같은 비디오를 미리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눈폭풍으로 인한 스노우데이를 기다렸다 이번 비디오를 내보낸 것이다.

올랜은 딸들 때문에 랫잇고 노래를 자주 들었고 약 15분만에 패러디 가사를 만들었다. 실제로 비디오에서는 글렌디닝 교장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지만 이 학교의 합창단 지휘자인 저스틴 피터스 씨가 매사추세츠 시공크소재 사운드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것이다. hsb@bostonkorea.com

## 들리오 하원의장 자신의 임기 제한 폐지 시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정치인의 말은 결코 믿을 것이 못된다. 매사추세츠 하원 로버트 들리오 의장이 오는 29일 의회 민주당 코커스에서 자신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는 내부규정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스톤의 주요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들리오 하원의장

2017년이 두번째 임기의 마감인 들리오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왜 임기 제한 조항을 삭제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예정이며 이어 열리는 하원 본회의에서 이 규정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현재 들리오 하원의장의 임기제한 규정 폐지에 대해서 별다른 반대세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하원 의원은 하원 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 주민들에게 장기적인 하원 리더십이 가져다 주는 혜택에 대해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명분을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는 것은 하원의장의 임기제한 규정을 지난 2009년 제정한 이면에는 들리오가 있었기 때문이다. 들리오의 당시 하원의장이었던 살 디메시가 갑작스레 하원의장직을 사퇴하고 결국 추후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것과 관련 주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서 이 같은 임기제한을 추진한 것이었다.

로버트 들리오 의장은 2009년 보스톤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하원의장과 같은 직책은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함이 중요하다. 하원의장의

임기에 제한을 두는 것만이 이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그는 “일부에서 정치인들이 점차 타락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데 변화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들리오는 이제 2년의 임기만 남겨둔 상태다. 그는 2009년 하원의장 임기를 시작할 당시 “8년은 하원의장으로서 정말 긴 시간이다. 내가 8년을 재임한다면 그것은 영원하고 같은 것”이라고 농담한 바 있다.

그는 이제 8년이 아닌 영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연임하면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하원 내부 승계과정에서 등장하는 권력 다툼을 없앨 수 있고 레임덕 기간을 없앨 수도 있다. 더구나 주지사도 새롭게 바뀌고 상원의장도 새롭게 바뀌는 과정에서 하원의장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하다.

정치인이 자신의 말을 바꾸는 것은 단 한가지 경우 시대와 국민의 요구가 절실할 때다. 과연 지금이 그러한 시기인지는 하원의원들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 매사추세츠주, 고등학교 졸업률 상승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교육부가 고등학교 졸업률이 상승하여 86.1%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저소득층과 소수인종의 졸업률이 크게 상승하여 전체 졸업률이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매사추세츠 교육부는 지난 27일, 2010-2011 학년도에 9학년으로 입학했거나 전학을 온 학생들이 4년 내에

졸업한 비율을 발표하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졸업률은 8년 연속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졸업률 상승과 함께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중퇴하는 비율도 감소하였다. 2013-2014 학년도에 중퇴한 학생들의 비율은 2%에 불과하며, 6년 연속으로 3% 미만의 중퇴율을 기록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교육부는 6년

동안 3% 미만의 중퇴율은 최근 3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라고 설명하였다

고등학생의 4년 내 졸업률이 상승한 가장 주된 요인은 흑인 남학생의 졸업률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흑인 남학생의 졸업률은 전년 대비 3.1%가 증가하였다. 히스패닉 학생들의 졸업률도 2.4% 증가했으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졸업률도 2.5% 증가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jsi@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주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턴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과 각 지역에서의 각종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임종업이며 불경기에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자리에 집과 사업을 매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e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5  
Tel: (617) 869-4989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rangnim

**EXCLUSIVE**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림, 한마루, 서울 설령탕, 한진택배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9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LEXINGTON**



단독주택  
**For sale: \$ 799,000**  
2 BEDS, 2.5 BATHS, 1,811 SQ FT

**ACTON**



CONDO(2014년 새집)  
**For sale: \$ 699,900**  
4 BEDS, 3 BATHS, 3,200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

**NATICK**



CONDO  
**For sale: \$ 489,900**  
2 BEDS, 2 BATHS, 1,303 SQ FT  
NATICK MALL 과 PRIVATE 통로로 연결되어 있음

# 오바마 '성난 중산층'에 '백기' 학자금 저축 증세안 폐기

1천 200만 529플랜에 과세 계획 철회  
529 플랜 가입자 70% 15만 불 이하 소득자로 밝혀져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산층 혜택을 늘리겠다고 내놓았던 대학 학자금 저축에 대한 증세계획을 일주일 만에 철회했다.

'부자' 학부모가 누리는 세금 혜택을 줄여 중산층에 돌려주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오히려 중산층에 대한 증세가 된다는 비난 여론에 따른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27일 오바마 대통령이 대학 학자금 저축 제도현황에 대해 착오한 점을 인정, 지난 20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내놓은 계획을 폐기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세법 529조항을 적용받는 대학 학자금 저축 제도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인 2001년 도입됐다.

학자금 저축상품에 가입한 학부모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 투자수익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아 학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현재 미국내 1천200만 가구가 관련 상품에 가입, 학부모들의 대학 학자금 주요 조달원이 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학자금 저축 이용자의 70%가 연간소득 20만달러 이상 부유층 가구라고 판단했다며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영리단체 '대학예금재단'(CSF)의 2014년 조사결과를 보면 학자금 계좌주의 70%가 연간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였다. 특히 계좌주 10%의 연간 소득은 5만 달러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저축 가입자도 크게 늘어 전체 예금액도 제도시행 첫해인 2001년 194억 달러에서 지난해 2천450억 달러(약 265조원)로 불었다.

이 같은 현실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 이후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으로부터도 비난이 이어졌고, 중산층 '살리기'가 아닌 '죽이기'라는

국민 여론도 확산했다. 공화당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은 중산층에 대한 과세에 따름없는 대통령의 계획이 입안되면 이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중산층이 더욱 힘들게 될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도 27일 인도 방문을 마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던 대통령 전용기에서 동행하던 오바마 대통령에게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계획 취소를 확인하면서 "대통령이 국정연설 때 내놓았고 양당 지지도 받는 여타 교육세 감면 법안들의 통과에 하원이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yct9423@yna.co.kr

## '하늘의 백악관' 에어포스 원, 보잉 747-8로 바뀐다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의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이 새로운 기종으로 바뀐다.

미국 공군은 보잉 747-200 기종에 기반한 현 에어포스 원 기종을 최신 747-8 기종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미국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보잉사는 1968년 최초의 점보제트기인 747기종을 개발해 이듬해 2월 첫 비행실험을 마친 뒤 47년간 전 세계 항공사에 여객기와 화물기로 공급해왔다.

현 에어포스 원은 747-200 기종을 군사적으로 변용한 것으로, 공군에서는 VC-25로 불린다. 그러나 1991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절부터 사용돼 기종 자체가 너무 노후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교체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에어포스 원이 될 747-8 기종은 2005년부터 생산됐지만 고유가 현상이 지속된데다 경쟁기종인 에어버스 A380에 밀려 주문실적이 매우 저조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잉 측은 최근 747-8 기종의 생산을 매월 1.5개에서 1.3개로 줄였다.

새 전용기는 2018년 이후에나 공급될 예정이어서 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타 볼 기회를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늘의 백악관'으로 불리는 에어포스 원은 핵무기 폭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 첨단 미사일 요격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공중 급유가 가능하고 100명이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1주일 이상 하늘을 떠다녀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rhd@yna.co.kr

## 미 의회 '첫 흑인여성' 린치 법무장관 인준 청문회

(워싱턴=연합뉴스) 강익명 특파원 = 미국 상원은 2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에릭 홀더 법무장관의 후임으로 발탁한 로레타 린치(56·여)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열었다.

린치 지명자는 이민개혁 등의 현안에서 공화당과 다른 견해를 분명하게 밝혔지만, 무난하게 인준 관문을 통과해 미국 역사상 첫 '흑인여성' 법무수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 동부연방지검 검사장인 린치 지명자는 이날 열린 상원 법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의회와 새로운 관계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상원 인준을 받아 법무장관으로 취임하면, 흑인 장관으로는 홀더 현 장관 이후 두 번째고, 여성으로는 1993~2001년 재임한 제넛 리노 전 장관 이후 두 번째다.

keykey@yna.co.kr



##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 781.391.6200

# 781.391.7700

78 SWAN ST. MEDFORD, MA 02155  
FAX: 781.827.0867 EMAIL: SUNAUTOBODY@YAHOO.COM  
WEBSITE: http://sunauto-boston.haninis.com/

Grand Opening

## Bliss Image

Open 7 Days

**FULL SERVICE DIVERSE SALON AND SPA**

- Hair (남녀 헤어컷, 펌, 케라틴 트리트먼트, 하이라이트, 컬러, 코팅)
- Skin (all types Facials and Microdermabrasion)
- Nail (Manicure, Pedicure, Gelnail and Spa)
- Waxing (원하시는 어느 부분이든 됩니다)
- 속눈썹 연장 (Lasts up to 3 months, Water Resistant)
- Body Massage (Swedish and Deep Tissue massage)



**Hollywood Lashes**  
Semi Permanent Lash Extension  
•Both men & women can benefit  
•Waterproof and weather Proof  
•Comfortable and natural just like your own eyelashes

•EYELASH EXTENSION COURSE AVAILABLE  
Certification of Completion given

11A Corinth St. Roslindal MA 02131  
**SHOP: 617.323.0023**  
**CELL: 617.818.5596**

**Business Hours:**  
Mon-Sat: 9am - 7pm  
Sun: 9am - 6pm  
**Wanted:**  
Chair for Rent(Hair Stylist)

## MED ACUPRESSURE

지압치료(Acupressure Therapy)  
핫스톤  
속눈썹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Office.617.795.0095, Cell.617.970.6038  
시간 : 월요일 ~ 토요일 (10am ~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 미국 연준, 초저금리 유지... '인내심' 표현 그대로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28일(현지시간) 현행 제로(0) 수준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전 "인내심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연준은 27일부터 이틀간 금리·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새해 첫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연준은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위원회는 통화정책 정상화(기준금리

인상)에 착수하는 데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을 것(it can be patient in beginning to normalize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FOMC 회의 때 나온 '인내심' 표현이 그대로 담긴 것이다.

연준은 당시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선제안내(포워드가이던스)로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동안 동원했던 '상당 기간 초저금리 유지' 언급을 대체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리세션(경기 후퇴)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8년 12월부터 초저금리를 유지해온 연준의 이날 결정은 시장 전문가들이 대체로 예측했던 것이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지난해 12월 FOMC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적어도 향후 두 차례 회의, 즉 이번 FOMC 회의 및 3월 중순 회의에서 정책 변경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keykey@yna.co.kr



## '감정 읽는' 앱 잇단 출시 WSJ, 사생활 침해 우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중우 특파원 = 미국의 IT(정보기술) 창업기업들이 최근 얼굴 표정으로 내재된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선보이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이모션트와 어펙티바, 아이리스 등 IT 창업기업 3인방은 최근 인간의 표정을 통해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기업용 앱을 속속 출시했다.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시에 본사를 둔 이모션트는 고객들이 제품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탐지하는 기업용 앱을 출시하고 혼다자동차 및 프록터앤갬블과 시험 운용을 하고 있다.

MIT 출신 연구원들이 만든 기업용 어펙티바는 코카콜라와 유니레버 등의 광고를 고객들에게 노출해 이들이 광고에 반응하는 얼굴 표정을 웹 카메라로 찍은 뒤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내놓았다.

캘리포니아 주 마운틴뷰에 있는 아이리스는 얼굴 표정을 통해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연방수사기관에 판매해 심문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 만여 명의 얼굴 표정을 카메라로 찍은 뒤 이들의 표정에서 기쁨·분노·슬픔·놀람·공포 등의 내적 감정을 일일이 범주화하고 분석해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이모션트는 다인종 다민족 수백 만 명을 마케팅 리서치에 참여시켜 반응하는 얼굴 표정을 방대한 규모로 축적했으며, 어펙티바는 80개국에서 240만 명을 대상으로 70억 개에 이르는 감정 반응을 측정했다.

실제로 이들의 기술은 수사기관이 범인을 심문할 때, 교실에서 학생들의 수업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판별할 때, 레스토랑이나 쇼핑몰에서 고객들의 만족상태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오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들이 개발한 기술과 응용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방지 규제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모션트나 어펙티바는 얼굴 표정 사진을 찍은 후에는 곧바로 삭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제3자가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재축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특히 이들이 첨단 기술과 방대한 빅데이터로 무장했지만, 얼굴 표정을 통해 사람의 감정을 읽는다는 가설에 비춰 오독(誤讀)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의 기술 개발에 영감을 준 비언어 의사소통 전문가이자 '얼굴 심리학'의 대가인 폴 에크먼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오남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크먼 박사는 비언어 의사소통과 감정에 대해 연구하면서 얼굴 표정에 따라 감정이 나타나고 얼굴 표정을 통해 거짓말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운 심리학자다.

그가 개발한 얼굴 움직임 부호화 시스템(FACS·Facial Action Coding System)은 미국 드라마 '라이 투 미'의 기본 바탕이 됐으며, 브래드 피트 주연 영화 '벤저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선 얼굴 지도가 적용되기도 했다.

에크먼 박사는 "정부가 개입해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면서 "적어도 쇼핑몰과 같은 공중장소에서는 고객들에게 최소한 자신의 감정선이 읽히고 있다는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뉴욕 경찰들이 훈육받은 찰스 리버먼은 에크먼 교수의 얼굴 움직임 부호화 시스템을 활용해왔지만, 범인들의 행적과 얼굴 표정 사이의 부조화를 정확히 읽어내고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jjung@news1.kr

## 유튜브, 플래시 대신 HTML5 기본으로 재생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의 비디오 서비스 '유튜브'가 사실상 모든 브라우저에서 영상을 재생할 때 HTML5를 기본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때 동영상 재생에 널리 쓰인 어도비의 플래시 기술이 '관 뚜껑에 대못질'을 당한 셈이다.

HTML5는 웹 언어인 HTML의 차기 버전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웹 브라우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표준안이 작년 10월 확정됐다.

유튜브는 지난 27일부터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애플 사파리, 모질라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모든 주요 브라우저의 최신 버전에서 HTML5를 통한 비디오 재생을 기본으로 하고 있

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HTML5의 작업 초안이 만들어진 2010년부터 실험적으로 이를 지원해 왔다.

최근에는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가 PC, 스마트폰, 태블릿뿐만 아니라 스마트TV나 게임기 등 매우 다양한 기기에서 웹 브라우저로만 작동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HTML5의 '암호화된 미디어 확장' 기능을 통해 비디오나 오디오 콘텐츠에 다양한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기술이 적용됐을 경우에도 웹 브라우저로 이를 문제 없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따른 것이다.

세계 최대 비디오 서비스인 유튜브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한때 웹 기반 비디오 재생에 매우 널리 쓰이던 어도비의 플래시 기술은 사용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플래시는 브라우저 대부분에 기본 요소로 포함돼 있지 않아 따로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작동하는데, 이 점이 보안을 약화시키고 모바일 기기의 전력 소모를 늘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애플은 2007년 아이폰을 처음으로 내놓은 후 이 기기에서 플래시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구글도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에서 플래시를 한때 지원하다가 이를 포기했다.

다만, 온라인 광고나 소규모 비디오 사이트 등에서는 아직 플래시가 쓰이는 경우가 흔하고, 구형 브라우저를 쓰는 유튜브 사용자들도 플래시를 써야 영상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solatido@yna.co.kr

## 애플 분기 실적 사상 최고, 4월에 애플 와치 시판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애플이 27일(현지시간) 예상을 뛰어넘는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을 내고 착용형 단말기 '애플 와치' 출시를 위해 4월로 확정해 발표하면서 장외거래에서 주가가 급등했다.

화면 크기를 키운 아이폰 신제품의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으나, 아이패드의 판매는 오히려 큰 폭으로 줄어 들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27일 끝난 이 회사회계연도 1분기의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7천450만 대였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시장 분석가들의 추정치 평균이었던 6천490만 대보다 훨씬 높다. 아이폰 매출액은 511억8천만 달러로, 애플 전체 매출액의 68.6%를 차지했다.

다만 아이패드는 2010년 첫 제품이 나온 후 가장 큰 폭으로 판매 대수가 감소했다.

1분기 아이패드 판매량은 2천142만 대로, 전년 동기(2천604만대)에 비해 17.7% 줄었다. 아이패드 매출액은 899억 달러로, 애플 전체 매출액의 12.0%를 차지했다.

애플이 27일 예상을 뛰어넘는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을 내고 착용형 단말기 '애플 와치' 출시를 위해 4월로 확정해 발표하면서 장외거래에서 주가가 급등했다.

화면 크기를 키운 아이폰 신제품의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으나, 아이패드의 판매는 오히려 큰 폭으로 줄어 들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27일 끝난 이 회사회계연도 1분기의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7천450만 대였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시장 분석가들의 추정치 평균이었던 6천490만 대보다 훨씬 높다. 아이폰 매출액은 511억8천만 달러로, 애플 전체 매출액의 68.6%를 차지했다.

다만 아이패드는 2010년 첫 제품이 나온 후 가장 큰 폭으로 판매 대수가 감소했다. 1분기 아이패드 판매량은 2천142만대로, 전년 동기(2천604만대)에 비해 17.7% 줄었다. 아이패드 매출액은 899억 달러로, 애플 전체 매출액의 12.0%를 차지했다.

애플은 1분기에 맥 컴퓨터 552만대를 판매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0% 늘어난 것이다. 맥 매출액은 69억4천만 달러로, 애플 전체 매출액의 9.3%였다.

# TASTE OF KOREA

# 코리아나

##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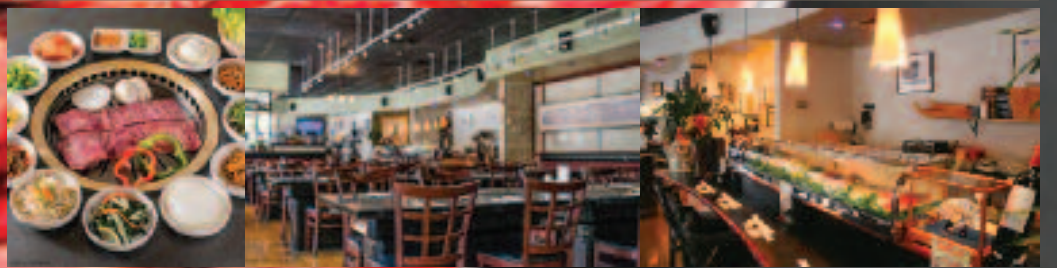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 20% 할인

올가닉 트리트먼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컵  
왁싱  
각종 펌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 박 대통령 지지율 29.7%...핵심 지지층 이탈 신호?

리얼미터 "5년 전  
대선후보 시절 29.7% 기록  
부동의 핵심 지지층"

반등 기대 높지만,  
추가 하락은 '핵심 지지층  
이탈' 의미 '적색경보'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20%대로 추락했다.

여론 조사기간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27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날보다 0.4% 포인트 하락한 29.7%를 기록했다. 통상 지지율이 30%이하로 떨어지면 정상적인 국정수행이 어렵다고 본다.

문제는 이날 기록한 29.7%가 과연 '바닥'이냐는 점이다.

청와대의 바람대로 이 수준에서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할지, 아니면 지지

율이 속절없이 하락하며 집권3년차에 조기레임덕을 맞는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지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 29.7%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기록한 29.7%는 박 대통령의 '부동의 핵심 지지층'이라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0년 2월 대통령 후보 시절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이명박 대통령과 극심한 갈등을 보이며 4주차 지지율이 29.7%로 최저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세종시 이전에 대한 원안을 백지화했고 박 대통령 후보는 이에 반대했다. 그 결과, 세종시 원안에 대해 반대성향을 나타냈던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급락했고, 반대로 대전·충청, 전남·광주 지역은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수준으로 급락했던 당시 지지율을 '부동의 핵심 지지층'으로 인식하고 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28일 "세종시 수정안, 원안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극심한 갈등을 보일 때, 대선후보 지지율로서 가장 최저치가 29.7%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을 마친 뒤 센터 내 "크리에이티브 존"에서 창업동아리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면서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라고 해야 할 고정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얼미터 조사에서 어제 29.7%를 찍었는데, 당시 고정 층이 유효한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는 향후 조

사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같은 '부동의 핵심 지지층' 균열이 가며 최후 마지노선이 붕괴되는 상황이다.

여권과 청와대 안팎에서는 대체로

29.7%의 지지율을 저점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 그 이하로 하락한다면 '핵심 지지층'의 균열을 의미해 위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birakoca@news1.kr

##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Quincy College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JAN. 30TH - FEB. 5TH, 2015**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and Pinterest!

H MART



Let's Go Places

## WIN THE NEW 2015 TOYOTA RAV 4 XLE

### CUSTOMER APPRECIATION SWEEPSTAKES

Until Apr. 9th, 2015

at All MA Stores (Drawing Date : Apr. 12th, 2015 @ 4pm)  
 Simply insert the bottom of your shopping receipts in the Sweepstakes Drawing Bin & you could be a winner. **SMART CARD MEMBERS ONLY WITH OVER \$20 PURCHASE.**



2015년형 토요타 라브 4 XLE의 당첨 기회를 잡으세요!  
 H마트 MA 매장 스마트 카드 고객은 \$20이상 장을 보신 후 영수증에 찍힌 응모권으로 응모하시고 행운의 주인공이 되세요!



2015 RAV 4 XLE



**TOTAL 83 WINNERS!**

- 1st Prize : TOYOTA RAV 4 XLE - \$25,000 + value (1 winner)
- 2nd Prize : COCO Cosmetics Gift Set - \$499.99 (1 winner)
- 3rd Prize : AMORE Cosmetics Gift Set - \$99.99 value (1 winner)
- 4th Prize : Hmart Food Court Gift Certificates Pack - \$50 value (20 winners)
- 5th Prize : JUNG KWAN JANG RG Latte Box - \$20 value (10 winners)
- 6th Prize : HARU HARU Milled Rice 15 lbs. (50 winners - 25 per store)

No purchase necessary to win. You may also simply sign up for a Hmart Smart Card in order to receive (1) raffle ticket. Must be a legal 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to win. All taxes and fees will be responsible for the vehicle winner. All Hmart employees, families, related vendors, & tenants of all Hmarts are ineligible to win. You may email us at marketing@hmart.com for more details.



\*The actual prize may look different than the image above.

### THE FRESHEST SEAFOOD SALE

Newly arrived SEAFOOD SPECTACULAR

아침에 도착하는 싱싱한 수산물을 H마트에서 만나보세요.

- SQUID FROZEN 냉동 오징어 450-600's/lb. \$1.99
- TONGTONGBAY HALF CUT CRAB 통통배 절단꽃게 1.5 lbs. \$4.99
- TONGTONGBAY SQUID RING 통통배 오징어링 1 lb. \$2.99
- TONGTONGBAY SEAFOOD MIX 통통배 해물모듬 1 lb. \$3.99
- NORWEGIAN SALMON STEAK 노르웨이 연어 스테이크 \$5.99 lb.
- NORWEGIAN MACKEREL 노르웨이 냉동 고등어 \$1.49 lb.
- GLOBAL UNAGI KABAYAKI 글로벌 우나기 7oz./pkg. \$5.99

Experience the FRESHEST SELECTION of QUALITY SEAFOOD

OMEGA 3 NO HORMONE NO GMO NO ANTIBIOTIC

FRI./SAT./SUN ONLY 30 / 31 / 01 ONLY

### ENJOY every spoonful at TEATIME

Our collection of teas are made for every mood.

해운음과 함께 여유로운 차 한잔

REFRESH WITH SWEET CITRUS, ENJOY WITH FRUIT AS SWEET AS SUMMER, RELAX WITH SWEET CITRUS, ENJOY WITH SWEET CITRUS

<b>FRI./SAT./SUN ONLY 30 / 31 / 01 ONLY</b> Korean Singo Pear 신고배 박스 box \$24.99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49	Garlic 마늘 5pcs/pkg. pkg./for \$21.99	Ginger 생강 lb. \$1.99	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lb. \$0.99	Ox Tail 소 꼬리 lb. \$10.99
Beef Top Blade 부채살 낙엽살 lb. \$7.99	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Single Belly 양념 벌집 삼겹살 lb. \$5.99	Beef Short Rib Chunk for Stew 찜갈비 lb. \$12.99	Whole Chicken 통닭 lb. \$1.79	NISHIKI Premium Grade Rice 니시끼 쌀 15 lbs. \$14.99	HARU HARU 100% California Grown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쌀 4.4 lbs. \$4.99
NOODLE LOVERS Noodles 면사랑 사천 짬뽕/산동 간짜장 14.8 - 24oz. \$4.99	CHUNGJUNGONE Soy Bean Paste 청정원 재래식 생된장 6.17 lbs. \$7.99	CHUNGJUNGONE Hot Pepper Paste 청정원 태양초 참고추장 6.6 lbs. \$12.99	AJINOMOTO Hondashi Bonito Soup Stock 아지노모토 혼다시 2.2 lbs. \$14.99	PENGUIN Canned Mackerel Pike 펭귄 콩치캔 14.1oz. \$1.99	NONGHYUP Citron Syrup Tea 농협 유자고을 고흥 유자차 2.2 lbs. \$5.99
HAITAI Peanut Crunchy Snack 해대 맛동산 14.81oz. \$2.99	KIRIN Steamed Buns 기린 속이 알찬 호빵 All Varieties/9.52oz. 2\$3 ea./for	Booby Dog Candy Pillow 부비 강아지 캔디 베개 All Colors/Small size/ea. \$13.99	Vegetable Knife for Chopping 야채 채칼 4.5mm/ea. \$3.99	Kitty Apron 나옹이 앞치마 ea. \$9.99	ZOJIRUSHI Stainless Lunch Jar 조지루시 보온 도시락통 SL-NCE09ST/ea. \$32.99

# [MB 회고록] "자원외교, 더 두고 봐야"

야 공세 적극 차단  
"자원외교는 10~30년 거쳐  
성과",  
"자원외교 자체 좌약시  
어리석은 짓"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자원외교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자원 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송농을 찾는 격'"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달 2일 발간을 앞두고 있는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자원외교는 미래 생존의 문제"라고 야당의 공세를 적극 반박했다.

29일 공개한 회고록 발췌본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은 "야당은 우리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실적에 대해 공세를 퍼고 있다"며 "자원 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 거쳐 나타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비판이 사실과 대부분 다르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며 "과장된 정치적 공세는 공직자들이 자원 전쟁에서 손을 놓고 복지부동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이 같은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험-고수익 구조라는 자원 개발의 특성상 해외 자원 투자는 위

험을 무릅쓰고 이어지는 것"이라며 "실패한 사업만을 꼬집어 단기적인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며 전임 김대중·노무현 정부 등과 비교한 성과를 내세웠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공기업이 해외 자원에 투자한 26조 원(242억 달러) 중 4조 원(36억 달러)은 이미 회수됐다고 했다. 또한 201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제시하며 "미래의 이자비용까지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된 향후 회수 예상액은 26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총회수 전망액은 30조 원으로 투자 대비 총회수율은 114.8%에 이른다"며 "전임 정부 시절 투자된 해외 자원 사업의 총회수율 102.7%보다도 12.1% 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한 초대 국무총리로 한승수 국무총리를 임명한 것은 해외 자원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해외 자원 개발의 총괄 지휘는 국무총리실에서 맡았다"며 "한 총리는 외교 분야에 경륜이 많고 특히 자원 외교 부문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의 복잡한 현안에 대해서는 내가 담당하고, 해외 자원 외교 부문을 한 총리가 힘을 쏟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며 "물론 나 역시도



내달 2일 출간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정상 외교 등을 통해 자원 외교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가 자원외교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2014년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달아 중남미 순방을 통해 자원 외교를 위한 외교 전쟁을 벌였다"며 "그러나 같은 해 한국의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의 해외 신규 자원 개발은 극히 미미했다. 정치권의 자원 외교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해외 자원 개발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벌하면 된다"면서 "그러나 이런 문제를 침소봉대해 자원 외교나 해외 자원 개발 자체를 좌약시하거나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에너지와 자원 확보는 미래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ydkim@news1.kr

# 홍영표 "MB 아직 꿈꾸고 있어"

(서울=뉴스1) 김현, 서미선 기자 =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저서에서 자원외교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우물가에서 송농을 찾는 격'이라고 반박한 것과 관련, "자원외교 관련해서 아직도 이 전 대통령은 꿈을 꾸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원외교, 자원개발 문제는 이미 그 부실이 드러났고 많은 문제점들이 국민에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조특위는 오늘까지 해서 3일째 자원 3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장조사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는 지금 재정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면서 "특히 오늘 현장조사하게 될 광물자원공사는 사실상 부도상태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사태가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은 10년~30년을 기다려보라 한다"며 "2조가 투입된 캐나다 하베스트 날 정유공장은 329억에 이미 매각했다. 우리가 10년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 기다릴 사업이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많은 사업들이 사실상 실패해서 저희가 보기엔 정리를 해야 할 단계다. 특히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한 자원개발은 탐사사업이 아니고 이미 탐사가 끝나 경제성이 확인돼서 개발생산을 했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은 이것을 알면서 얘기하는지, 모르면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28건의 VIP자원외교를 통한 MOU를 직접 체결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총리실에서 한 일'이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직접 MOU를 체결한 모든 사업은 실패로 끝났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 7건의 사업도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데도 '본인은 모른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주도해 총리실이 했다'고 책임전가까지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 자원개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증언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서서 실체를 본인이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진실을 국민들에게 증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ayunlove@news1.kr

# 여, 정부 정책 혼선 연일 파상공세, "1% 주택대출 면밀 검토"

(서울=뉴스1) 진성훈, 유기림 기자 = 새누리당 지도부가 연일 정부 정책 추진과 관련한 혼선을 비판하고 있다.

2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연 1%대 수익공유형 주택대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에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국민들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 은행 원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 보증을 선다는 것인데 추후 집값 하락 시 손실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과거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경우 재정이 악화돼 정부 예산이 투입된 적이 있다"며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정확한 미래 예측성을 가진 제도 설계가 아니

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1%대 주택대출이 국민과 시장에, 그리고 나라 장래 살림에 혼선과 부작용을 주는 부분은 없는지 당 정책위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최근 신중해야 할 정부의 정책 추진이 조령모개식으로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조령모개식 정책 추진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보건복지부가 당초 2013년 7월부터 추진해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오늘 최종 발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장관이 개편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며 "건보료 인상으로 불만을 갖게 될 국민을 설득한다, 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이 필요

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가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며칠 전 행사부 장관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한 일이 있고, 얼마 전에는 연말정산 파동으로 추가 환급이라는 유례없는 연말정산 소급적용 결정까지 내린 적도 있다"며 "정부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면서 올해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많은 각성을 해야 한다"며 "정부와 청와대는 앞으로 좀 더 눈과 귀를 열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도권 규제혁파 필요성을 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급하면서 "최근 정부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줘서 수도권 규제를 혁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며 "이 문제도 혼선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불안, 공포를 잘 해결하는 수단을 강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 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몰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rue@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 이완구 청문회 쟁점, 투기의혹 · 논문표절 · 미 시민권자인 두 손자

### 재산신고에 채무 누락, 장남 재산 0원 신고도 석연치 않아

(서울=뉴스1) 박상희 기자 = 병역과 증여세 문제를 놓고 의혹이 일었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27일 이 후보자 차남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37(648㎡)와 1-71(589㎡)의 등기부등본 등 토지 정보에 따르면, 이들 필지는 2001년과 2002년 각각 이 후보자의 장인과 장모가 매입했다. 이후 이들 필지는 2002년 이 후보자의 부인이 물려받았으며 다시 2011년 이 후보자의 차남에게 증여됐다. 이 토지는 이 후보자의 부인이 증여받은 시점 이후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1-37 필지는 이 후보자의 장인이 매입한 2000년 6월 1㎡당 공시지가가 12만5000원이었으나, 이 후보자 부인에게 증여하던 2002년에는 두 배가 넘는 28만7000원, 다시 차남에게 증여한 2011년에는 141만원으로 상승했다.

1-71 필지도 장모가 매입한 2001년에는 1㎡당 22만4000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151만원으로 뛰었다.

두 필지를 합친 2001년 공시지가는 2억6412만원이었으나 차남에게 증여한 시점인 2011년에는 18억307만원으로 6.8배 올랐다. 2014년 기준으로 현재 이 땅의 가치는 공시지가상 20억1271만원이다. 이 후보자의 장인, 장모가 토지를 매입한 뒤 1~2년 만에 이 후보자 부인에게 증여 형식으로 넘겼고 이후 이 토지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볼 때 투기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전날 이 토지의 차남 증여 경위에 대해 "공시지가 등의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져서 증여했다"고 설명한 바 있는 이 후보자는 이날도 투기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투기 목적이라면 5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다 냈겠느냐"며 "2001년 매입 당시 실거래가가 7억5600만원(공시지가 2억원)이던 땅이 14년 만에 20억원 안팎이 됐고 5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냈다. 이것이 투기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94년 단국대 행정학과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을 놓고 표절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일부 언론

에서는 이 후보자의 학위 논문인 '정책 집행에서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경찰공무원의 사례를 중심으로'의 내용 중 상당수가 앞서 1984년 발간된 '정책학원론'에 실린 문장을 별도의 인용표기 없이 그대로 인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20년전의 논문을 지금의 잣대로 보면 지적(표절의혹)이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공개 내역에서 부인의 사인간 채무 2억5000만원의 신고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직계 존비속 재산으로 총 11억1463만원을 신고했고 이 가운데에는 부인의 사인간 채무 2억5000만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 채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지난 2006년 5월 지방선거 자금 등으로 차입됐다고 재산변동 사유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지난해 국회공보에서는 이 사인간 채무가 신고되지 않아 고의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측은 "2013년 보궐선거 후 국회에 등원한 후 2014년 재산신고를 할 당시 실무자의 착오로 채무가 누락됐다"고 뒤늦게 발견, 국회 감사담당관실에 채무를 추가 신고해 같은해 7월 사인간 채무가 재산내역에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가 27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차남의 병역 문제와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추가됐다"며 "따라서 갑자기 재산이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장남의 재산이 0원으로 신고됐는데 이 부분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장이다.

진 의원은 또 미국 시민권자인 두 손자가 미국에서 출생하게 된 경위와

현재 생계 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서 근무하고 신군부에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은 점도 지적하며 "이 후보자는 국보위에서 한 일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

## 친박 이주영 Vs 탈박 유승민, 당선자에 따라 당청관계 바뀐다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이주영·유승민 의원이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다.

이번에 당선된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과 연말정산 등 증세 논란 등 중요한 현안들을 다뤄야 해 누가 원내대표가 되는지에 따라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후보와 유 의원은 그동안 당청관계뿐 아니라 증세, 개헌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지만 이 의원이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을, 유 의원은 계파색이 옅은 원유철 의원을 정책위의장 후보로 결정하면서 시각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청관계, '옳은 소리' vs '당이 정치 중심'

이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당청간의 화합을 우선 순위로 두고 "쓴소리보다는 '옳은 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무성 대표 취임 이후 당청관계가 삐걱대고 있는 것을 겨냥한 듯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내대표로서 소통과 화합의 아이콘이 되겠다"면서 "혁신의 아이

콘인 김무성 대표와 똘똘 뭉쳐 여론의 결속시키겠다"고 했다. 이 의원과 짝을 이룬 홍 의원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출마선언문에서 "개인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청와대와 여의도를 있는 다리를 불사르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치어리더'임을 자임했다.

유 의원은 "당이 정치의 중심에,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변화와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또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입법이나 예산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청와대나 정부와 매일 소통할 것"이라면서 "당이 중심을 잡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당청관계에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정책, 인사, 소통 모두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정부 임기 초반 2년 동안 정부나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뒷받침해주자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다"며 "국민 눈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뒷받침만 해 주는 소위 말하는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요할 때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소리를 내는 역할이 부족했다는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증세만이 능사인 지 '신중' vs 증세없는 복지 '허구'

이 의원은 연말정산 파동으로 불거진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증세로 뒷받침 하는 것이 능사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증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의 러닝메이트인 홍 의원은 "국민들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섭섭해 하지 않도록 정부와 잘 조율해서 정부가 얘기하는 증세없는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방침에 힘을 실어줬다.

유 의원은 이 의원과는 달리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 감세는 반대"라고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

그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모두 백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할 수 밖에 없고 '중부담 중복지'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 · 공무원연금 개혁..



차기 여당 원내사령탑 경선이 본격화 되고 있다. 내달 2일 치러지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이주영 의원(왼쪽)과 유승민 의원의 양강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같은 듯 다른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적용범위가 너무 넓다는 데는 공감했다.

이 의원은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다 보면 과도한 규제로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등 부작용이 대두될 수 있어 우선은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이를 봐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유 의원은 "공직의 부패와 크게

상관없는 분들까지 너무 넓게 적용하면 이 법이 현실성이 있겠느냐는 비판이 있다"면서 "의원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 법이 약간 수정이 돼 통과가 된다면 왜 수정이 됐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혐의기구도 구성이 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논의의 결과를 지켜본 뒤 여야고 머리를 맞대고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haru@news1.kr



## BOSTON ANGELS CHOIR

### 보스톤 엔젤스 합창단 단원 모집

**CHILDREN AND YOUTH CHOIR**

**SPRING SEMESTER 2015**  
REHEARSAL STARTING FROM FEB 7TH(SATURDAY)  
EVERY SATURDAY, 14 WEEKS

**YOUTH CHOIR: AGE 12-17, 5:30-6:20 PM**  
**CHILDREN'S CHOIR: AGE 5-11, 6:30-7:20 PM**

**REGISTRATION IN PROGRESS**  
\$120 PER STUDENT  
\$110 PER STUDENT FOR 2 OR MORE SIBLINGS

**CONDUCTOR: BAEKYU KIM**  
DOCTOR OF MUSIC, BOSTON UNIVERSITY  
**ACCOMPANIST: YERIM KANG**

AT  
**NORTH BOSTON KOREAN CHURCH**  
244 LOWELL ST.,  
ANDOVER, MA 01810

**ORGANIZED BY MCM**  
(MULTI-CULTURAL MINISTRY)

INQUIRY: 978-269-4198  
MCMNORTHBOSTON14@GMAI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http://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Eugene Khang DMD(강유진)**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http://www.prospectdental.com)



## Salon Sabrina

###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분/여자컷 30분/파마 70분 부터  
디지털 130분 부터/케라틴 매직 220분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 김용판 '국정원 수사 축소·은폐' 1·2·3심서 모두 무죄

대법원 "공소사실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로 입증 안돼"

(서울=뉴스1) 전성무, 구교운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57) 전 서울 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수사 축소·은폐 등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울 수서경찰서의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브리핑이 이루어진 경위 및 그내용, 국정원 직원이 임의제출한 노트북 등 컴퓨터 2대의 분석범위를 설정하게 된 이유와 그분석 결과의 판

단과정 등이 명확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청장은 지난 2013년 18대 대선 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제기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하고 외압을 행사해 부실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청장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임의제출한 노트북에서 대선개입 증거가 발견됐음에도 수서서로 하여금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거나 특정 후보자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1·2심은 "김 전청장이 특정 후보자의 경찰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문제가 됐던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위한 보도자료가 허위 또는 은폐됐다고 볼 수 없고 김 전청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도 청장이라는 지위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또 당시 수서서 수사과정으로 외압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정 증언도 "증언이 객관적 사실을 배척하고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이같이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김 전청장은 그동안 제기된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국정

원 대선개입 관련사건 재판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 각급 법원, 대법원 등에 계류 중인 남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선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2월9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될 예

정이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야당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검찰의 압수수색 전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경감 등에 대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lennon@news1.kr

## 김용판 무죄 확정... '외압' 폭로 권은희 의원, 검 조사 불가피

지난해 7월 보수단체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 축소·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 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음에 따라 그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만간 검찰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김 전청장이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 전청장은 2년1개월 만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 은폐 혐의를 벗게 됐다. 반면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검찰의 소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에 의해 모해위증(謀害僞證)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 전청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김 전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등 김 전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그동안 1·2심 증인들의 법정진술 기록 등을 분석하고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관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오에 따라 검찰은 권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증언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자료분석을 마치는 대로 권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모해위증죄의 기본형량은 징역 10개월~2년으로 만약 권 의원이 기소되면 의원직 수행에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김 전청장은 2013년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 전청장은 당시 후배의 폭로로 발목이 잡혔고 외압을 폭로한 권 전수사과장은 지난해 7월 금배지를 달았다.

wooklee@news1.kr

## 청와대 폭파 협박 피의자는 일베 회원?... '일베손' 논란

(서울=뉴스1) 최대호 기자 = 청와대 폭파 협박 피의자가 연행 과정에 일베저장소 회원을 암시하는 듯한 손 모양을 해 논란이다.

강씨의 손 모양을 본 네티즌들은 그가 일베 회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피의자 강모(22)씨는 2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손가락을 이용한 제스처를 취했다.

후드점퍼와 챙이 있는 모자,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형사들에 이끌려 호송 승합차로 이동하던 강씨는 이상하게도 왼손만은 밖으로 노출시켰다.

노출시킨 왼손은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감아진 상태에서 나머지 손가락을 곧게 편 모양이었다.

이는 일베 회원임을 입증하는 손 표식과 흡사하다. 온라인상에서는 '일베손', 일베 인증손'이라는 표현으로 통한다.

언론보도를 통해 강씨의 손 모양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댓글을



청와대 폭파 협박 피의자 강씨

통해 '일베 인증'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일베는 극우를 표방하는 회원들이 주축이 된 커뮤니티 사이트로 알려져 있다.

일베 인증은 최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인 단원과 학생을 어묵에 비유한 사진에서도 포착, 화제가 된 바 있다.

강씨는 지난 17~23일 프랑스에서 자신의 SNS에 '대통령 자택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자택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6차례 올린데 이어 25일 오전 2시39분부터 5차례에 걸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sun0701@news1.kr



# YOU CAN'T TURN BACK TIME

Improve your academic performance and test scores at TAHS to achieve your goals.

## 2015 Spring Step Up Academic Tutoring Program

FEB 7 - MAY 16

15 GROUP SESSIONS  
10AM - 5PM

\* schedule adjustable upon request



SUBJECTS

- English (2 hrs/wk)
- Math (2 hrs/wk)
- Science (2 hrs/wk)

available for 3-10th graders

## Test Preparation



TOEFL



ETS Official Test & Teaching Center

SAT class also available

\* Subjects and tuition can be changed based on your needs and request. Please ask us for more details.



Past Students' Acceptances:

- |                    |               |
|--------------------|---------------|
| T. Lee (Seoul)     | Stanford      |
| T. Kang (Newton)   | Princeton/MIT |
| H. Kim (CA)        | Harvard/MIT   |
| J. Kim (RI)        | U. of Chicago |
| H. Chung (Belmont) | Northwestern  |



"For this important time in a student's career, we provide the edge to get ahead and master the skills necessary for these exams. I really enjoy teaching and developing the students' academic abilities and I feel that it really does make a difference."

-William Jameson (TAHS instructor)  
Harvard University



"TAHS helped me achieve great results in a very short time. TAHS gave me more than test preparation. Through support and encouragement, My TAHS mentor inspired confidence. Above all those things, the academy was more than a place to go and study, it was also a place for my bright future."

-V. Maeng (TAHS Student) Wellesley College



The Academy  
at Harvard Square

617-492-2722



Harvard Square  
30 JFK ST., 3RD FL., CAMBRIDGE MA 02138  
www.theAcademy.ac



#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Somerville 5 Family \$ 999,900**  
연수입 \$78900, 주거 면적 3072 Sq. 업데이트가 많이 된 집. (Anderson window, hard oak floors, granite counters, stainless appliances, Central Air Conditioning and in unit laundry), 경쟁력 있는 위치.



**Brookline 2 Family \$ 1,100,000**  
Tax\$8490, 주거면적2366sq, 대지면적4892sq, 좋은 학교, 잘 관리 된 집, Green line D 근접, Rt 9. 최상의 위치. 물 근접, 5 year Roof, 업데이트 heating system, 창문



**Newton 2 Family \$ 749,900**  
2가구 세들어 있음, 총 수입 약 55,000, 대지 면적 6555 sq.ft, 년Tax \$5664



**Newton \$1,300,000**  
2가구입주, 연수입\$84,500, 대지면적9229sq ft. 업데이트 많이 되어 있음. 렌트하기 좋은 위치(T 근접), 보스턴칼리지



**Newton \$1,999,000**  
2013년 새집, 최고 학교, 주거면적 5857sq ft. 대지면적 10990 sq ft. 방5개, 화장실5.5개 Energy St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Newton \$999,000**  
2013년 새집, 방 4개 화장실 3개, 좋은 학교 보기도문 새집 가격, 주거 면적 3850sq ft, 대지 면적8700 sq ft,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Reading \$ 365,000**  
2013 새 콘도 분양. 좋은 학교, 편리한 교통, 렌트비보다 저렴한 페이먼트, 방2, 화장실2개, 주거면적 1300sq ft. 30만불대는 한 유닛 남았음. 95 고속도로 근접, Garage Parking



**Burlington \$ 589,000**  
2013년 새집, 방3개, 화장실 2.5개, 주거 면적 2000sq ft, 대지 면적 4775 sq ft. H mart 상권 근접.



**Boston Fenway \$ 364,000**  
방 1개, 화장실1개, 주거면적 576sq ft, 콘도 fee \$ 298 (Heat, Hot water포함) 보스톤 중심의 대학가, T Station, 공원, 박물관.



**Winchester \$1,390,000**  
2013년 새집 최고의 학교 방4개 화장실 4.5개 주거면적 4000sq ft, 대지면적 17548sq ft, 마루 바닥, 최고의 학교, 편리한 교통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십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atertown, MA

##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습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http://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 오빠스시 OPPA SHUSHI

[www.oppasushi.com](http://www.oppasushi.com)

**시시미:**  
당신은 무엇이든 골라주세요!  
시시미1인당 부코팩스: \$150  
시시미2인당 부코팩스: \$300  
시시미3인당 부코팩스: \$450  
시시미4인당 부코팩스: \$600  
시시미5인당 부코팩스: \$750  
시시미6인당 부코팩스: \$900  
시시미7인당 부코팩스: \$1050  
시시미8인당 부코팩스: \$1200  
시시미9인당 부코팩스: \$1350  
시시미10인당 부코팩스: \$1500

**시시미 특코스:**  
당신만의 코스도 가능합니다!  
A: 7코스, 소분 \$98.95  
B: 6코스, 소분 \$74.95  
C: 5코스, 소분 \$50.95  
D: 4코스, 소분 \$26.95

**김밥:**  
A: 김밥 200개, 소분 \$130  
B: 김밥 100개, 소분 \$65

**연말연시 모임은  
오빠스시와 함께**

617-202-3808 •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http://www.newkcc.org)

##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honio Daveluy Parish of Corpus Christi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서클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 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http://www.stdaveluychurch.org)

##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http://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http://www.bostonrenewal.org)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 Welcome, tbo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시연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무제한 시청 월 \$37.99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O'live, O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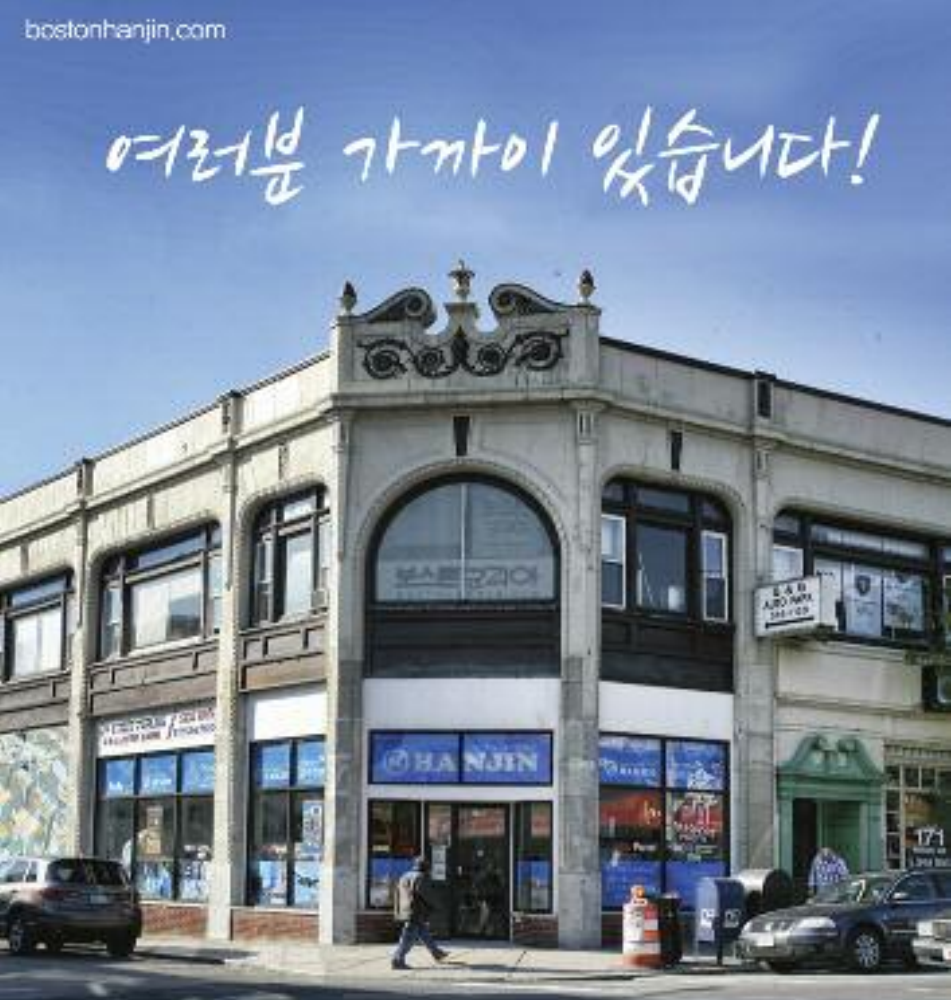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bostonhanjin.com

##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 PGA

주니어 레슨  
성인 레슨  
그룹 클리닉  
전지 훈련 (Florida)



**CHARLIE CHI, PGA**  
PGA Professional

PGA Class A  
IMG Florida Professional  
JPGA & KPGA Teaching  
Mini Tour Teaching



508.277.8247

##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 617.877.3435

Fax: 617.566.7982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 패트리어츠 vs. 시호크스, 수퍼볼 사전 분석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49회 수퍼볼에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시애틀 시호크스가 격돌한다. 패트리어츠는 2004년 시즌 이후 10년만에 수퍼볼 우승에 도전하고 있고, 시호크스는 작년에 이어 수퍼볼 2연패를 노리고 있다.

패트리어츠는 현재 NFL에서 공수 균형이 가장 잘 잡혀 있고, 그만큼 약점이 없는 팀으로 꼽힌다. 반면에 시호크스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막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수퍼볼 우승까지 넘보고 있다.

박빙의 경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포지션별로 어느 팀이 우세한지 살펴보자.

### 쿼터백: 패트리어츠 우세

49회 수퍼볼은 쿼터백 간의 친구 대결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쿼터백 모두 이미 수퍼볼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다.

37세의 탐 브래디는 나이만 놓고 보면 이미 풋볼 선수로서의 전성기가 지난 선수다. 그러나 실력만큼은 리그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 정규시즌에서 33개의 터치다운에 9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했으며, 플레이오프 들어서도 6개의 터치다운을 성공시켰다.

프로 3년차인 러셀 윌슨은 26세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선수다. 그러나 윌슨은 NFL 경력 3년 동안 벌써 수퍼볼 우

승 반지를 하나 갖고 있고, 2번째 수퍼볼 경기에 나선다. 윌슨은 지난 NFC 챔피언십 경기에서 인터셉션을 4개나 기록했지만, 연장전에서 역전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시키며 지옥과 천국을 오갔다.

윌슨이 뛰어난 쿼터백이고 경력에 비해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아직 브래디에는 미치지 못한다. 실력과 경험, 모든 면에서 브래디가 우위에 있다.

### 러닝백: 시호크스 우세

시호크스는 NFL 최고의 러닝백 마산 린치를 보유하고 있다. 최고의 러닝백을 보유한 시호크스의 러닝 공격은 단연 리그 최고다. 린치는 비스트 모드(Beast Mode)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야수와 같은 린치의 질주를 막을 수 있는 팀이 없다.

장차 명예의 전당에 오를 선수인 린치는 NFC 챔피언십 경기에서도 진가를 발휘했다. 25번의 러닝 시도에 157야드 전진, 1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며 패커스 수비진을 뒤흔들었다.

패트리어츠는 상황에 따라 3명의 러닝백을 번갈아 기용하고 있다.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활약한 르개렛 블런트가 수퍼볼에서도 중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벨리치 감독이 어떤 수를 들고 나올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패트리어츠의 러닝백도 경기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수퍼



볼은 린치의 쇼가 펼쳐지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와이드 리시버: 패트리어츠 우세

이번 수퍼볼 경기는 근래에 펼쳐진 수퍼볼 중에서 와이드 리시버가 가장 주목을 덜 받는 수퍼볼일 것이다. 패트리어츠와 시호크스, 양팀 모두 수퍼스타로 불릴만한 리시버가 없다. 그나마 평균 이상의 기량을 보유한 리시버가 패트리어츠의 줄리언 에들먼이다.

시호크스는 시즌 중에 퍼시 하빈을 트레이드로 제츠에 보내면서 리시버

층이 더욱 얇아졌다. 시호크스의 리시버 수준은 초창기 벨리치-브래디 시절과 흡사하다.

시호크스나 패트리어츠에 모두 주목할만한 리시버가 없지만 패트리어츠에 에들먼이라는 믿음만한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

### 타이트엔드: 패트리어츠 우세

패트리어츠에는 NFL 어느 팀에도 없는 타이텐드, 랍 그롱코스키가 있다. 그롱코스키의 큰 덩치와 빠른 움직임

이, 캐칭 능력은 상대 수비수에게 악몽과도 같다. 또한 블로킹 능력도 뛰어나 러닝 공격에도 효과적이다.

시호크스에도 루크 윌슨이라는 꽤 젊은 타이텐드가 있지만 그롱코스키에는 견줄 수가 없다. 패트리어츠가 수퍼볼에 진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그롱코스키가 부상 없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jsi@bostonkorea.com

## 정철화 프로의 골프 이야기 271

# 어떤 골프 클럽을 살 것인가?



글쓴이: 정철화, Ph.D.  
978-726-6979  
jungc811@hotmail.com  
Stow Acres Country Club  
58 Randall Rd. Stow, MA 01775

골프 클럽을 장만하려면 풀세트를 기준으로 할때 보통의 경우 약 \$200에서 \$2,000 정도 든다. 가장 싼 새 것으로 장만할 때의 경우가 방에서부터 퍼터까지 다 합쳐서 \$200 짜리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다. 필자도 사실 그렇게 골프 클럽의 구매가 시작되었다. 당시 학생의 신분으로 거금을 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선배가 빌려 준 7번 아이언 하나로 연습장에서 열심히 연습은 했는데 막상 골프장에 나가려고 하니 골프채 세트가 필요했던 것이다. 골프라는 것이 7번 아이언 하나만 잘 친다고 골프를 치는 것이 아니고 드라이버부터 퍼터까지 14개의 클럽을 다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서너가지의 클럽을 사용할 줄 알아야 골프라는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 사이에 끼여져 있는 스포츠 용품

세일 용지를 잘 살펴서 세일해서 \$200인 Dunlop 풀세트 골프채를 산 걸로 기억된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 골프채로 참 열심히 연습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골프채의 값에 따라서 골프채의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값이 비싸다고 해서 좋은 골프 클럽이라고 해서도 말이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격대비 좋은 골프 클럽을 살 수 있을까?

첫째로 골프 클럽을 사려면 골프에 대하여 잘 알고 자신의 골프 실력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골프채를 사면 성공의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골프채는 만들어진 재질에 따라서 느낌이나 기능이 많이 달라진다. 크게 쇠로 만들어진 것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같은 쇠라고 하더라도 주물로 만든 쇠가 있고 담금질로 만들어진 쇠가 있다. 같은 종류의 쇠라 하더라도 그 무게에 따라서 기능을 달리 할 수가 있다. 많은 번수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의 경우 나름 혼자 잘 연구해서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홀로 구입을 하는 경우 성공의 확률이 그리 높지 못하다.

둘째로 새것으로 구입하기 보다는 중고 골프채를 추천한다. 특히 한 두 시즌 지난 모델

들은 아주 좋은 가격에 골프 클럽들을 구입할 수가 있다. 특히 골프채들의 경우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기능상 과거의 모델들과 비슷한 경우가 허다하다. 오히려 몇 년 전의 모델이 기능상 자신에게 더 맞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런 중고 골프채의 경우 새것에 가까운 클럽이라도 하더라도 아주 싸게 구입할 수가 있다. 드라이버의 경우 자신에게 맞는 로프트(드라이버 헤드의 각도)와 샤프트의 강도만 알면 쉽게 중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아이언의 경우 샤프트를 아이언으로 사용할지 그래파이트로 사용할지를 알아야 하고 강도 또한 알면 된다. 이러한 것들을 처음부터 알기란 사실 쉽지는

않다. 옆에서 안내해 주는 친구나 선생님이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된다.

셋째로 골프샵에 자주 가봐야 한다. 야외로 공이 날아가는 것을 보는 곳이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실내에서 스크린으로 공이 날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 적어도 공이 어떤 탄도도 얼마만큼 날아가는지를 보여 줄 수 있으면 된다. 같은 스펙이라도 해도 회사마다 클럽의 무게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느끼는 무게의 정도가 각각 다르게 느껴진다. 몇 개의 선택으로 좁혀지면 각 클럽 페이스에 임팩트 테이프를 붙여서 몇 개의 모델을 비교해 보면 자신에게 맞는 클럽을 보다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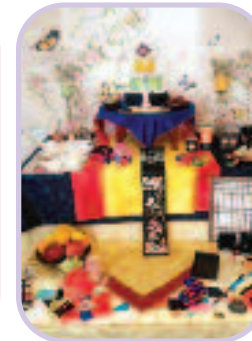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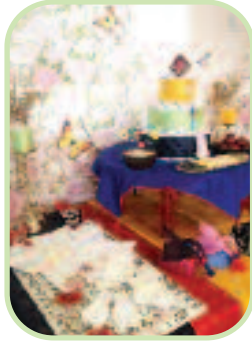


HAPPY

# 해피돌상

##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품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점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잔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춤탈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 2015학년도 봄학기 \* 등록부

www.ksneusa.org

---

◆ 가을학기 : 2015년 2월 21일~2015년 6월 13일 ( 졸업식 및 종강식 )

◆ 봄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반 편성: 2월 21일(토) 오전 8시 반 (강당)

◆ 모집과정 : 기초~고급과정(21개반), 이중언어 과정(6개) 및 성인반(2개)

↳ 기초 과정 및 이중언어 과정 신입생의 경우 선착순으로 등록

◆ 학교주소 :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C/o Oak Hill Middle School, Newton)

◆ 등록기간: 재학생은 1월 31일까지 신입생은 2월 15일까지

◆ 오전 및 오후 프로그램 수업 과목 안내 :

(1) 오전반: 9:30am-12:40pm 한국어, 한국역사, 음악교육(1~3반), 연극 작문교육(1~4반), 붓글씨, 한국무용, 민요, 사물놀이 등 전통 문화교육

(2) 오후반: 12:45pm-1:45pm : 미술(1, 2반), 사물놀이팀, 발레반, 태권도반, 펜싱팀, 붓글씨반, \*골프교실(기초-8시 반 수업)

◆ 수업료(오전 & 오후 프로그램) ◆ 마감일 이후 등록시: Late Fee \$20

(1) 오전반 : \$320/1자녀 \*\$570/2자녀 \*\$710/3자녀 (2) 오후반 : \$120/학기

◆ 자녀가 이중언어반에 등록한 경우 → 부모가 성인반 등록 시 50% 할인

◆ 자녀 2인 이상 등록 시에는 3회까지 등록금을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1회-1월 31일, 2회-2월 21일, 3회-3월 14일)

◆ 2세들의 뿌리교육을 함께 하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을 교사를 모집합니다. 동포 2세들을 위한 보람있는 뿌리교육에 함께 동참하실 분은 아래 연락처로 언제나 연락해 주십시오. \* 모집부문: 한글, 문화, 역사 및 오후 특별활동 및 기타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Homepage : www.ksneusa.org

▶ 등록금 수표는 Korean School of New England로 써 주십시오

▶ 등록금 보내실 주소: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Il Nam, Principal  
4 Bryant Ave.  
Shrewsbury, MA 01545

### ◀ 등록부 (Registration Form) ▶

(2014 가을학기 재학생은 주소가 변경된 경우가 아니면 \*표시된 부분만 기재)

\*한글이름: \_\_\_\_\_

영문이름: \_\_\_\_\_

생년월일(년월일): \_\_\_\_\_ 성별: 남(Male) \_\_\_\_\_ 여 (Female) \_\_\_\_\_

출생지(Birth Place): \_\_\_\_\_ 학년(2014년 가을): \_\_\_\_\_

부모/보호자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 집주소: \_\_\_\_\_

\* Email: \_\_\_\_\_

\* Cell: \_\_\_\_\_ \* 집전화: \_\_\_\_\_

\* 비상연락(성명): \_\_\_\_\_ \* 전화: \_\_\_\_\_

◀ 신입생만 기록(New Students Only): 한글실력(Korean Level): 가능한 자세히 ▶

★ 말하기 (Speaking): \_\_\_\_\_

★ 듣기 (Listening): \_\_\_\_\_

★ 읽기 (Reading) : \_\_\_\_\_

★ 쓰기 (Writing) : \_\_\_\_\_

오전반 수업료 \$ \_\_\_\_\_ \$320/1, \$570/2, \$710/3명

오후반 수업료 \$ \_\_\_\_\_ (1<sup>st</sup> Choice: \_\_\_\_\_ 반)

(2<sup>nd</sup> Choice: \_\_\_\_\_ 반)

기부금: \$ \_\_\_\_\_ (Tax Deductible)

총 액: \$ \_\_\_\_\_ (1/31 & 2/15 이후 Late Fee \$20)

---

♥ 학부모님 및 후원자 여러분의 기부금(Donation)을 부탁드립니다 ♥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연방 및 주정부에 비영리단체(Non-profit Org)로 등록되어 있어 기부금의 세금 공제 혜택(tax deduction Benefi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남일 교장: (508) 523-5389(C), (508) 842-1551(Fax)

Email address: ksneusa@verizon.net

◆ 봄학기 신입생 & 편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반 편성: 2월 21일(토) 오전 8시 반 ★ 학교 강당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가지 서비스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4,800  
**Sharon, MA**  
3 Beds, 2.5 Baths, 1872sf.  
잘 관리된 좋은 구조의 집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99,900  
**Woburn, MA**  
5 Beds, 4 Baths, 4238 sf.  
Terrific spacious home for Large family  
Anna Jung 617-780-1675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65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Janice Lee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215 sf.  
넓은 공간, 아름다운 실내 구조  
살기 좋고 우수한 학군  
이현주 401-935-3397



\$725,000  
**Brookline, MA**  
2 Beds, 2 Baths, 1523 sf.  
Near BU, Coolidge Corner  
Sunny 2 bedrooms  
Jason Jeon 617-642-5670



\$699,000  
**Lexington, MA**  
5 beds, 2 baths, 2021 sf.  
Endless possibilities to develop  
Many acres of conservation  
OT Kim 617-620-8242



\$359,000  
**Billerica, MA**  
3 beds, 2.5 baths, 2694 sf.  
Near Commuter Rail  
Nice neighborhood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429,900  
**Belmont, MA**  
3 Beds, 1 Bath, 1245 sf.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nna Jung 617-780-1675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랜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국 부동산 판매업자 조합 / 2014년 1월 / 1000여 명의 에이전트 /  
간접투자(부동산) / 2014 미국 부동산 / 판매 실적 1위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즐 송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b>Restaurant</b>  \$699,000 <b>Cambridge, MA</b>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b>SAT Academy</b>  \$50,000 <b>Brookline, MA</b> SAT Tutoring Academy Near many good schools Close to Route 9 and I-95 Julie H. Lee 401-935-3397	<b>Business Consulting</b>  <b>레스토랑 셋업 컨설팅</b> SJ Park 617-304-7001	<b>Restaurant</b>  \$789,900 <b>Brookline, MA</b>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Beauty Service</b>  \$100,000 <b>Newton, MA</b> 비즈니스에 좋은 위치 Kwang O. Kim 617-792-8615	<b>Full Plant Cleaner</b>  \$260,000 <b>Chelmsford, MA</b> Chelmsford downtown 아파트, 콘도 단지 주변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179,000 <b>Nashua, NH</b> One of the reputable Asian cuisines in Nashua, NH Jason Jeon 617-642-5670	<b>Deli</b>  \$250,000 <b>Boston, MA</b>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b>Cafe</b>  \$250,000 <b>Boston, MA</b> Cafe w/ 프론트 요거트, 버블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199,900 <b>Newton, MA</b>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b>Dry Cleaner</b>  \$25,000 <b>Norwood, MA</b> 40 lbs washing machine located in strip mall Anna Jung 617-780-1675	<b>Jewelry Business</b>  \$74,990 <b>Natick, MA</b>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b>Investment</b> <b>E-2 &amp; EB-5 투자</b> 문의 781-259-4989	<b>Full Plant Cleaner</b>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b>Convenience Store</b>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b>병원 건물 렌트</b> Worcester 3000 SF. S.J Park 617-304-7001
<b>Full Plant Cleaner</b>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b>커머셜</b> <b>커머셜 건물 투자</b> S.J Park 617-304-7001	<b>비즈니스 빈자리</b> 센트럴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b>비즈니스 빈자리</b> S.J Park 617-304-7001	<b>APT Rental</b>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지금 곧 전화하세요 !!!

**오빠스시 OPPASHUSHI**  
www.oppashushi.com

사시미: 1인분 10.99, 2인분 19.99, 3인분 29.99, 4인분 39.99, 5인분 49.99, 6인분 59.99, 7인분 69.99, 8인분 79.99, 9인분 89.99, 10인분 99.99

스시: 1인분 10.99, 2인분 19.99, 3인분 29.99, 4인분 39.99, 5인분 49.99, 6인분 59.99, 7인분 69.99, 8인분 79.99, 9인분 89.99, 10인분 99.99

617-202-3808 •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617-877-3435

www.Stevesuh.com

Vol 11, No.5 January 30 2015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업소탐방 272

〈특별편 3〉

## 보스톤코리아 편집진의 추천 업소

연타바 8+1 (로컬 730 Play)로 새해 연타바

다 좋은 새해로 하모니 되시길 바랍니다

Welcome, **73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617.955.9112  
지금 연타하세요

무제한 시청 월 \$37.99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이맘 때면 따끈따끈한 요리가 생각나기 마련이다. 세 번째 추천 업소편으로는 겨울에 어울리는 곳 세 군데를 준비했다. 진한 육수의 일본식 라멘과 중국식 샤브샤브, 진한 초콜릿 풍류로 눈 오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유메오 카타레(Yumewo Katare)**  
1923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40  
(617) 714-4008  
yumewokatara.com

포터 스퀘어에 위치한 유메오 카타레는 줄을 서서 먹어야 하는 유명한 일본 라멘 가게다. 단골들의 입소문을 타 손님이 바글거리는 맛집으로 평일에도 평균 30분은 족히 기다려야 한다. 일본 라멘은 진하고 담백한 육수가 중요한 법. 육수가 일품인 유메오 카타레의 라멘은 아삭한 숙주와 두툼하고 부드러운 돼지고기가 곁들여진다. 특히 인기 메뉴인 부타 라멘(Buta Ramen, \$14)은 큼직한 돼지고기가 다섯 덩어리나 올라온다. 유메오 카타레 라멘의 가격은 주로 \$11에서 \$15



사이로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영업시간은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며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무다.

▶**차이나타운 핫팟 뷔페(Chinatown Hot Pot Buffet)**  
70 Beach Street #1 Boston, MA 02111  
617-338-0808

중국식 샤브샤브, 핫팟을 먹고 싶다면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핫팟 뷔페를 시도해볼 것을 추천한다. 신선한 고기와 해산물, 야채, 면 등의 재료를 무한정 주문할 수 있는 핫팟 뷔페는 주말이면 밀려드는 손님으로 2층짜리 건물이 꽉 찬다. 중국 향신료가 들어간 육수는 여러 종류가 있어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보통 무난하게 스파이시 브로스(Spicy Broth)와 레귤러 브로스(Regular Broth)를 선택한다. 소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지만 중국식 소스가 입에 맞지 않는다면 초장 등을 기호에 맞게 챙겨가는 것도 좋겠다. 뷔페의 런치 가격은 \$15.95이며 디너는 \$21.95이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다.

▶**맥스 브레너(Max Brenner)**  
745 Boylston St, Boston, MA 02116  
(617) 274-1741  
maxbrenner.com

초콜릿이 들어간 다양한 제품을 파는 맥스 브레너는 핫 초콜릿, 밀크셰이크, 크레페, 와플, 초콜릿 피자 등의 다양하고도 독특한 메뉴를 선보인다. 각종 과일과 마시멜로, 케이크 조각 등을 따뜻한 고진한 초콜릿에 찍어 먹는 풍류는 특히 겨울철 손님들이 많이 찾는 인기 메뉴다. 막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잘게 부순 헤이즐넛 초콜릿과 따뜻하게 녹인 초콜릿에 찍어 먹는 아이스크림 바 풍류도 인기가 좋다. 가격은 \$11.75부터 \$24.95까지 다양하다. 맥스 브레너의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밤 11시까지며 금요일과 토요일은 새벽 1시까지 연다.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다.

dyoo9146@bostonkorea.com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길 하시겠습니까?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임 용 순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617)285-8870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경찰서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야동보호	617-748-2000
야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헬퍼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직접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환소(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대한장애인협회	978-407-7554
국제장애인장애인협회	603-899-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위원회	978-902-8305
NE교육지원위원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화위원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산악회	617-270-1948
뉴잉글랜드 시민연합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 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인트폴회	508-826-5270
이탈리아계 동맹협회	978-514-3399
한인학교 동맹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연합회	401-481-4900
한국어인양회(메인)	207-878-5652
625창조연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자고등학교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등포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슨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슨교회	617-792-8780
그레이트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도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리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207-223-1690
무지개교회	617-774-1617
말일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통합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여우살렐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오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비엔교회	978-274-2369
엠펜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엠펜스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시온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장로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도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어	781-238-0303
----------------	--------------

### 건축

클로버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김원태 건축사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옥 루미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정 골프 레슨	339-223-4700

### 공인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연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 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 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 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인낸스	617-799-6158

###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문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유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 커튼클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열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루퍼서널헤어디자인	978-272-7886
헤어 스킨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4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Bl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 물상대여

해피물상	617-583-2339
------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 변호사

김경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먼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가유가	617-566-8888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가트)(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뜰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랜타,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월슬리 7달 아기 돌봐주실 분을 찾습니다. 주5일(월-금), 급여협상가능  
T. 781-492-8766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배드포드지역  
딜리버리하실 분 구합니다.  
T. 781-275-7600, C. 781-801-6896

BU근처 가유가에서 캐시어,  
딜리버리 드라이버, 웨이추레스 구함.  
T. 781-888-8287

Walpole  
세탁소 카운터 구함.  
T. 781-771-7069

산모도우미 찾으시는 분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자격증 있음.  
T. 339-227-9683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일식당 매매 15K - 18K**

한식 겸하면 최고 조건, 독점지역 저렴한렌트, 알차고 꾸준한 매상 두차례 영주권 내준 식당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TEL 603-557-3123

세탁소판매, 스프링필드 근방  
공장과 Drop, 연매상 \$700,000  
T. 413-244-8347

B라인 뱅크, 2베드룸 하우스 \$2300  
룸렌트 유틸 미포함.  
T. 781-888-8287

**FIXALL**

바이러스 치료, 데이터 백업/복구 맥OS/윈도우/리눅스 설치/복구 각종 컴퓨터 수리 및 업그레이드 홈 네트워크 설치  
TEL 617-710-4952

**N[매매]**  
노래방매매(조지아 애틀랜타)  
현재 성업중이고 매상 좋고 단골손님 많은곳. 여도우미 있음, 룸 8개, 최고급 인테리어 (여도우미 두고 노래방 비즈니스 하시길 원하시는분 좋은 기회)  
T. 770-283-9687

**N[매매]**  
텍사스 샌안토니오  
초가집 가라오케 렌트 또는 매매 합니다 (하드러커 포함)  
렌트 \$1,864/월  
매매 \$65,000 (영주권자 이상 만 가능)  
T. 210-803-5194

**N[매매]**  
사우스 케롤라이나  
지압집 급매  
가격 \$35,000  
T. 678-939-5153

**N[매매]**  
스시 윙가게 매매  
일년에 36만불 매상올린가게 사우스케롤라이나 오렌지버그지역  
매매가 8만 5천  
좋은위치, 좋은비즈니스  
T. 803-760-9292

**N[구인]**  
바이널사이딩 메케닉(준메케닉) 6개월 Job, 작업장소는 플로리다 임  
T. 770-871-9049

**N[구인]**  
남자 배우자 원합니다  
저는 회사원으로 근무중이고 배우자는 5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이고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는곳으로 이주 하실수 있는 분은 전화 주세요  
T. 904-753-7600

**N[구인]**  
메케닉 구함  
사이딩 00명 (헬퍼,메케닉,쿠루포함)  
익스테리어+인테리어 기능공우대  
숙소제공, 지역(미네소타,노스다코다)  
T. 651-329-3307

**N[구인]**  
마사지사 구함  
숙식제공, 수입보장  
안전한곳  
T. 406-259-6211

**N[구인]**  
샌안토니오 초가집에서  
일하실 여성분 구합니다  
숙식제공되고 라이드 됩니다  
T. 210-803-5194

**N[구인]**  
S룸살롱 아가씨, 마담,웨이터 구함  
수입보장, 수준높은 실리코넬리 산호세 지역(주급+TIP 월 7천-1만)  
T. 408-990-5120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al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rates effective as of 5/1/14.

# '솔로' 정용화, 씨엔블루 벗고 자신의 색을 입다 (인터뷰)

(서울=뉴스1스포츠) 명희숙 기자 = 씨엔블루 정용화가 솔로로서 자리매김을 시작했다. 솔로로 대중 앞에선 그는 밴드의 색을 잠시 지우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홀로 무대에 오르는 정용화는 그룹의 빈자리를 자신의 색으로 오롯이 채운다.

정용화는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마리아칼라스에서 첫 솔로 앨범 '어느 멋진 날'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가졌다. 이번 쇼케이스는 음감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용화는 타이틀 곡 '어느 멋진 날'을 첫 곡으로 15분 분량으로 앨범 전곡을 들려줬다. 그는 "대선배님들이 하는 음감회 형식으로 진행하게 돼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앨범을 만들 때 심정이나 그런 것들을 진솔하게 나누고 싶다"며 첫 솔로앨범을 선보이는 심정을 말했다.

그는 이번 솔로 앨범 전곡 작사와 작곡 작업에 참여했다. 그중에서도 타이틀 곡 '어느 멋진 날'은 정용화의 손때가 가장 많이 묻은 곡이다. 정용화는 기존 씨엔블루가 보여줬던 브릿팝의 느낌을 털고 발라드인 '어느 멋진 날'을 통해 자신만의 컬러를 강조했다.

'어느 멋진 날'은 이별 후의 혼자 남겨진 심경을 덩달하게 풀어쓴 역설적인 가사가 인상적인 곡이다.

"음악적으로 가장 자신 있는 곡을 뽑자면 아무래도 타이틀 곡인 '어느 멋진 날'이 아닌가 싶어요. 또 가장 오래, 열심히 녹음했던 곡이에요. 타이틀 곡에 대해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씨엔블루랑 다르려면 약기를 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했죠. 그게 발라드가 아니었나 싶어요. 어느 멋진 날이 가장 적합했던 것 같아요."

'어느 멋진 날'의 뮤직비디오는 그간 씨엔블루가 선보였던 스타일과 또 달랐다. 드라마 타이즈 형식으로 배우로서도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용화가 스토리를 이끈다.

"씨엔블루 때도 드라마 형식이 조금 있었는데 애매했어요. 이번에 제대로 드라마 타이즈 형식으로 찍었죠. 매번 지켜보고 짝사랑만 하는 역할이었는데 이번에는 탈피했죠. 그동안 외국 배우들과 뮤직비디오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분과 한 것도 좋았어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정용화는 솔로로서 씨엔블루와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했다. 윤도현, 양동근, 버벌진트, 피터달릭, 임준결 등 국내외 아티스트와의 다양한 콜라보가 돋보였다.

그는 함께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췄던 양동근과는 '마일리지'라는 곡으로 함께 했다. 또 윤도현은 '추억은 잔인하게'에 피쳐링에 참여했으며, 버벌진트는 '원기옥'의 랩 피쳐링을 맡았다.

"평상시 꼭 함께 작업해보고 싶었던 선배님들과 함께해 재밌고 뜻깊었어요. 양동근 선배님은 드라마 끝나고 바로 가사를 써서 보내줬어요. 버벌진트 선배님은 평소 제가 멜로디 라인을 정말 좋아했던 분이라 도움을 많이 받았죠. 또 어릴 때부터 팬이었던 윤도현 선배님과 작업하게 되는 영광도 누렸고요."

정용화는 국내 뮤지션들과 호흡을 맞추며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내려 노력했다. 쟁쟁한 선배들과의 작업은 매 순간 배움의 연속이었고,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 됐다.

"콜라보를 하게 된 건 나만의 스타일이 아닌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서였죠. 같이 하면 더 좋은 스타일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죠."

정용화의 음악적 욕심은 단순 콜라보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해외 뮤지션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음악적 작업을 시도했다. 이번 앨범에서는 대만 가수 임준결과 미국 유명 뮤지션 피터 달릭이 참여했다.

"해외 아티스트와 작업할 때 메신저로 곡을 써서 교류했어요. 문법은 다 틀리겠지만 단어 하나하나로 이해하면서 곡을 썼는데 그런 게 참 재밌더라고요. 피터달릭은 애국가 작업으로 미국에 갔을 때 소개받아 만나게 됐죠. 함께 곡 작업을 하고 싶다고 했고 한국에 오자마자 데모를 주고받으며 곡을 썼어요."

정용화는 앨범 곳곳에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고, 손때를 문했다. 그의 숨이 닿은 가사와 손때 묻은 멜로디는 고스란히 그의 음악적 결로 살아났다.

"수륙곡 중에 '마지막 잎새'를 가장 좋아해요. 제가 걸보기엔 우여곡절 없어 보이지만 제 안에 힘든 일도 많았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누가 '웬찮냐'라고 물어보는 것조차 싫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쓴 노래가 '마지막 잎새'예요."



이 곡을 쓰면서 많이 이겨내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뜻깊은 곡이죠."

정용화는 자신의 앨범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즐거웠다고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롯이 홀로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이 조금은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정용화의 앨범 안에는 그만이 느꼈던 고민과 설렘, 좌절과 환희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reddgreen35@news1.kr

## '강남 1970' 개봉 5일만에 100만 돌파

### 역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기록 깰까

(서울=뉴스1) 온라인뉴스팀 = 영화 '강남 1970' 이 개봉 5일 만에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은 26일 '강남1970' 이 23-25일 전국 830개 상영관으로 70만 9608 명을 불러 모아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누적 관객 수는 100만 1778명이다.

'강남1970' 의 100만 돌파 속도는 역대 청소년 관람 불가 흥행작 1위인 2010년 '아저씨' (누적 628만 2774 명)보다 하루 빠른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명절에 개봉해 2014년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타짜-신의 손' (누적 401만 5362명)과 동일한 속도다.

'강남1970' 은 1970년대 서울, 개발이 시작되던 강남땅을 둘러싼 두 남자의 욕망과 의리, 배신을 그린 유하 감독의 거리 3부작 완결편이다. 이민호와 김래원, 정진영, 김설현, 유승목, 김지수 등이 열연했다.

2위 자리에는 외화 '빅 히어로' 가 올랐다. 같은 기간 822개 상영관에서 66만 2086명(누적관객 83만 9275명)이 봤다. '국제시장' 은 51만 2749명(누적관객 1200만 5172명)이 봐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영화 '오늘의 연애', '박물관이 살아있다: 비밀의 무덤', '허삼관', '존 워' 등이 뒤를 이었



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도 이 정도 기록이라니, 대단하네", "액션도 멋있고 여운이 길게 남는 영화였다", "앞으로도 더 흥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khe45678@news1.kr

## 봉만대, 김구라와 <떡국열차> 촬영 돌입

### 원작감독 봉준호도 도움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에로게 거장' 봉만대 감독이 김구라가 출연하는 영화 '떡국 열차' 제작에 나선다.

봉만대 감독 측에 따르면 '떡국 열차' 는 영화 '설국열차' 를 19금 버전으로 패러디한 영화로 'SNL' 같은 형식의 드라마 영화로 총 10회 제작될 예정이다.

봉만대 감독은 지난해 10월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 에 출연한 바 있다. 당시 MC 김구라는 봉만대 감독에게 "같은 봉씨인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를 패러디한 19금 영화를 만들면 어떻겠냐" 고 제안한 바 있다.

이런 김구라의 발언은 결국 현실이

됐다. 실제로 지난 1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봉만대 감독은 "영화 '설국열차' 패러디 '떡국열차' 를 준비 중" 이라며 "미국 사이트 퍼니 or 다이 (Funny or Die)에서 우리나라 독점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봉준호 감독과 우리나라에 아직 패러디 문화가 많이 없는 것 같아 새롭게 이야기를 버무려서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구라는 30일 '떡국 열차' 티저 촬영에 돌입하며, 김구라 외에도 박휘순, 윤희빈, 모델 이영진 등이 출연하고 칼럼니스트 김태훈이 내레이션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영화 촬영은 3월에 진행된다. 또한 '떡국 열차' 는 '설국열차' 에서 허구의 환각제로 등장한 크로놀 대신 떡을 사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soho0901@news1.kr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5년 1월 19일 ~ 1월 25일

**1위**  
KBS2 주말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39.1%



2위 MBC 주말특별기획 전설의 마녀 30.6%



3위 KBS1 일일연속극 당신만이내사랑 25.9%

4	MBC	주말드라마(장미빛연인들)	21.7%
5	KBS2	일일드라마(달콤한비밀)	18.4%
6	KBS1	KBS9시뉴스	17.8%
7	KBS2	해피선데이	17.2%
8	KBS2	개그콘서트	15.4%
9	MBC	일일특별기획(압구정백야)	14.2%
10	MBC	MBC아침드라마(폭풍의여자)	14.0%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음원 차트 순위 10

01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정승환, 박윤하
02	화	매드클라운
03	또 운다 또	다비치
04	목소리	노을
05	위아래	EXID
06	팔베개	소유, 기리보이
07	LUV	Apink
08	사랑에 빠지고 싶다	정승환
09	광화문에서	규현
10	GOOD BOY	GD X TAEYANG

## 숫자 퍼즐 (Sudoku)

				9	8		7	2	
							1	9	4
	7				4				6
7		8	9					3	
	3							1	
	2				7	9			8
4			1					5	
3	8	5							
2	1		5	3					

2월 1일 - 2월 7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가슴을 활짝 열고</b></p> <p>●운수: 원가 변화를 주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과 현실이 따라주지 못해서 갈등을 겪게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전: 가슴을 활짝 열고 먼저 배푸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좁은 소견으로 결정하면 그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따르게 됩니다. ●애정: 사랑의 감정에 빠져 있어도 결혼을 결심하기에는 자기 자신만이 느끼는 고민이 많은 때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 6일 길일. 2, 3일 주의.</p>	<p><b>소띠   미리 대처하는</b></p> <p>●운수: 계획했던 일이 다소 늦어질 것이니 미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 매매하는 일로 고심하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애정: 유혹에 빠져들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이성 관계에 있어서 양다리를 걸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85, 73, 61, 49, 37년생은 2, 5일 길일. 3, 6일 주의.</p>	<p><b>범띠   현실과 타협하지 않도록</b></p> <p>●운수: 해외로 나가거나 장거리 여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나 변동, 확장을 하기에 적합한 때가 아닙니다. ●금전: 힘들다고 해서 지금 현실과 타협하는 결정을 내려 버리면 안 됩니다. 훗날 찾아오는 복을 차버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애정: 외로움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상대의 외로움이 자신에게 전달되어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3, 7일 길일. 1, 4일 주의.</p>
<p><b>토끼띠   해결의 실마리를</b></p> <p>●운수: 자신의 판단에 자신을 갖고 행동해도 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쪽으로 생각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금전: 소유의 만족보다 배푸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인간관계의 화합에 신경 쓰도록 하세요. ●애정: 약혼이나 결혼을 하기에 최적기입니다. 비즈니스로 하는 여행에서 멋진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4, 7일 길일. 2, 5일 주의.</p>	<p><b>용띠   서로간의 애정이 더 깊어지는</b></p> <p>●운수: 오랫동안 뜻대로 되지 않던 일이 해결되고 여러 면에서 나아집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금전: 금전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쉽게 풀려 나가겠습니다. 뜻밖의 소득으로 웃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희소식이 들려오고 서로간의 애정이 더 깊어지는 때입니다. 권태기의 부부나 연인에게도 희망이 보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 5일 길일. 3, 6일 주의.</p>	<p><b>뱀띠   현실에 만족하고</b></p> <p>●운수: 현실에 만족하고 마음의 동요만 없다면 무난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가끔적이면 새로운 투자나 사업체 확장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전: 모든 일을 순서에 따라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애정: 여러 가지 현실이 힘들수록 부부나 이성간이 이해심으로 상대를 받아주어야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 6일 길일. 4, 7일 주의.</p>
<p><b>말띠   행복하고 편안한</b></p> <p>●운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신봉회복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위의 변화에 잘 대응해야 대길합니다. ●금전: 가까운 사람의 도움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뜻밖의 행운을 잡게 됩니다. ●애정: 행복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내게 됩니다. 외로웠던 사람들은 의지할만한 사람을 만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3, 7일 길일. 5, 6일 주의.</p>	<p><b>양띠   조금씩 이루어지는</b></p> <p>●운수: 조금씩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안정을 갖게 되는 시기이니 투자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애정: 일시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긴 안목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정을 나누게 되니 더 가까워집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4, 7일 길일. 3, 6일 주의.</p>	<p><b>원숭이띠   한 걸음 물러서서</b></p> <p>●운수: 외면보다는 내면에 충실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나 앞서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금전: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지출할 일이 생깁니다. 특히 유흥비나 교제비가 늘어나니 절약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애정: 성격차이가 있는 이성과의 만남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함께 가야할 수많은 날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 5일 길일. 1, 7일 주의.</p>
<p><b>닭띠   차분한 마음으로</b></p> <p>●운수: 주의가 산만하고 초조해지기 쉬운 주입니다. 이일을 하면서 저 생각 저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 차분한 마음으로 적당한 긴장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계산상의 착오로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애정: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 6일 길일. 5, 7일 주의.</p>	<p><b>개띠   이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b></p> <p>●운수: 사업상으로 그동안 하던 일을 바꾸거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전업을 계획하는 시기로 적합합니다. ●금전: 돌아다니는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니 이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합니다. 외부로 활동을 해야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애정: 시부모나 가족과의 갈등이 해소됩니다. 독신자는 분홍빛 사랑을 맛보게 되는 주가 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3, 7일 길일. 5, 6일 주의.</p>	<p><b>돼지띠   적당한 선에서</b></p> <p>●운수: 아무리 내가 옳다 하더라도 옳은 것이 통하지 않고 막히는 일이 많은 때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상책입니다. ●금전: 수입이 떨어지는 주입니다. 너무 매상을 올리려고 무리하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합니다. ●애정: 주위의 눈을 피해서 만나야 되는 사랑이 점점 깊은 관계에 빠질 수 있는 시기이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5, 6일 길일. 1, 7일 주의.</p>

# EXID 하니 자연미인 입증

### "성형 한 군데도 안 했다"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EXID 하니가 자연미인이라고 밝혔다.

하니는 최근 진행된 KBS2 '해피투게더' 촬영 현장에서 "얼굴 성형을 한 군데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니는 "사실 성형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엄마가 '너 성형 한다고 김태희가 되는 건 아니다'고 말하며 반대해 생각을 접었다"고 덧붙였다.

EXID 하니 자연미인 소식에 누리꾼들은 "EXID 하니, 성형 안 해도 예쁘다", "EXID 하니, 어머니 솔직하시다", "EXID 하니, 성형할 곳 없는 것 같은데", "EXID 하니, 요즘 대세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하니는 '위아래' 댄스부터 걸그룹 최초로 발로 짚는 셀카 개인기를 공개하며 숨겨둔 예능감을 뽐냈다.

wlsgml3135@news1.kr



# 장혜진, 딥플로우와 신곡 발표

(서울=뉴스1스포츠) 박건욱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산하 인디레이블 주식회사 발전소에 새롭게 합류한 가수 장혜진이 디지털 싱글 '오래된 사진(아름다운 날들 Part.2)' 을 공개했다.

장혜진은 26일 0시 멜론, 지니, 네이버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신곡 '오래된 사진(아름다운 날들 Part.2)' 을 공개해 음악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청아하면서도 소울풀한 장혜진의 보컬이 돋보이는 이 곡은 2001년 발매한 정규 6집 타이틀 곡 '아름다운 날들' 의 블랙 뮤직 버전으로, 가사에는 오래된 사진을 통해 지나간 추억을 떠올린다는 내용을 담아 감성을 자극한다.

더불어 실력과 래퍼 딥플로우



(Deepflow)가 피쳐링에 참여해 곡의 매력을 한층 배가시켰음은 물론, 유명 힙합 에이전시 스톤쉽과 음악 프로듀서 TK 등 흑인 음악 전문 스태프들이 대거 참여해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kun1112@news1.kr

# 김대희, 제이디브로스 설립, 위기 돌파하나

(서울=뉴스1스포츠) 명희숙 기자 = 코코엔터 측이 향후 계획을 밝혔다.

코코엔터 측은 26일 '코코엔터테인먼트'의 폐업 소식 이후 저희 40여명의 연기자들이 다같이 모여 개그맨 김대희를 주축으로 새로운 동지를 틀고 '제이디브로스' 설립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김대희는 김준호와 함께 후배 연기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부 연기자들의 미지급 출연료 문제를 김대희 자비로 해결하기로 결정 했다"고 설명했다.

이하 공식입장 전문이다.

코코엔터테인먼트의 폐업 소식 이후 저희 40여명의 연기자들이 다같이 모여 개그맨 김대희를 주축으로 새로운 동지를 틀고 <제이디브로스> 설립

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개그맨 김대희는 "힘든 시기에 불평 없이 기다려준 후배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소속사 없이 활동하고 있는 연기자들의 힘든 부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연기자들끼리 뽕뽕 뭉쳐 작지만 우리들의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준호의 자리는 항상 비워져 있고, 지금하고 있는 일이 잘 마무리 되어 우리와 함께 하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편 김대희는 김준호와 함께 후배 연기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부 연기자들의 미지급 출연료 문제를 김대희 자비로 해결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제이디브로스>는 김대희, 김준현, 김지민, 이국주, 조윤호 등 다수

연기자들이 함께 합니다.

저희 <제이디브로스> 연기자들은 더 많은 연기 활동으로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새출발 하는 <제이디브로스>의 순수한 개그, 연기 열정에 많은 관심과 사랑,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ddgreen35@news1.kr



# 김진, '남자 셋 여자 셋' 이제니 근황 공개

### "미국서 사업 중"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김진이 이제니의 근황을 전했다.

김진은 지난 26일 방송된 SBS 파워 FM '김창렬의 올드스쿨'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해 MBC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역을 맡았던 이제니에 대해 언급했다.

김진은 "이제니는 미국에 있을 것이다"며 "그곳에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김창렬은 "이제니는 당시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었다. 원조 베이글녀 이지 않았나"며 "지금과 비교하면 이태임씨 같은 느낌이다"고 말했다.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김진, 이제니 근황 소식 반갑다", "김진, 무슨 사업을 하고 있을까", "김진, 이제니와 시트콤에서 호흡했구나", "김진, 이제니와 은근히 잘 어울렸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yjpark@news1.kr



#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 보스톤 한인 야구리그 2015 신입선수 모집!

The 2015 BKBL Draft is set for Saturday, February 28th  
Beginners to Advance level Welcome to tryout~



일시 : 2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BostonKBL.info](http://www.BostonKBL.info)



# 70 주기

## 윤동주 추모공연

2015년 2월  
보스톤 | 뉴욕 | L.A. | 서울

전세계가 비인간적인 전쟁의 광기로 휩싸여 있던 2차 세계대전의 끝자락, 1945년 2월 16일, 조선독립과 민족문화유지라는 죄목으로 일본의 감옥에서 만 27세의 나이로 죽어간 윤동주. 그와 함께,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려 했던 이들을 기억하며 윤동주 추모공연을 엽니다.

### 보스톤

2015년 2월 14일(토) 7:30 P.M.

ECC Chapel (보스톤한인교회)  
32 Harvard Street, Brookline, MA 02445

<http://eccckcb.org>

Hosted by  
The Korean Church of Boston, Domestic Mission Committee & Korean American Cultural Foundation(KACF)

### 뉴욕

2015년 2월 16일(월)  
8:00 P.M.

뉴욕장로교회  
43-23 37th Avenue  
Long Island City, NY 11101

[www.nypcfamily.com](http://www.nypcfamily.com)

### L.A.

2015년 2월 22일(일)  
7:00 P.M.

스페이스 공감  
2960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10

[www.facebook.com/spaceGGcafe](http://www.facebook.com/spaceGGcafe)

### 서울

2015년 2월 27일(금)  
8:00 P.M.

북촌창우극장  
종로구 원서동 158-2  
Seoul, Korea 110-280

[www.facebook.com/bcchangwoo](http://www.facebook.com/bcchangwoo)



김성희 | 건반  
보스톤/뉴욕



김효영 | 베이스  
보스톤/뉴욕



박수진 | 보컬  
보스톤/뉴욕



박주현 | 기타  
서울



신희선 | 생황+피리  
서울



이승연 | 베이스  
L.A.



이유림 | 해금  
서울



이은희 | 건반  
L.A.



이지연 | 보컬  
L.A./서울



정재니 | 해금  
보스톤



차승현 | 드럼  
보스톤/뉴욕



최보미 | 드럼  
서울



최자연 | 건반  
서울



한은준 | 기타  
보스톤/뉴욕/L.A./서울



홍석호 | 드럼  
L.A.



황두혁 | 베이스  
서울

후원 : 보스톤 한인교회, 한미 문화 재단(KACF), 뉴욕장로교회,  
아름다운 윤동주(이사장 이승중), 까마기 스튜디오

문의 : [snowingmap@gmail.com](mailto:snowingmap@gmail.com) | 201-835-8692 (미국) | 010-3238-8051 (한국)



아름다운 윤동주  
BEAUTIFUL YOUTH ORCHESTRA

윤동주의 시를 노래한다  
눈오는 地圖  
[www.snowingmap.com](http://www.snowingmap.com)

신영의 **세상 스케치**

483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

어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고 당신의 인생을 저당 잡힌 이가 이 세상에 어느 하나 있겠는가. 그저 당신의 바람은 일찍이 접어두고 자식이 원한다면 무조건적으로 희생했던 우리 세대를 키우신 부모님들이 계셨다. 당신은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자식에게는 정성을 다해 당신이 가지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 주시려 애쓰셨던 우리 부모님들. 이렇듯 우리가 자랄 때와 지금은 참으로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한다. 그것은 자식들 뿐만이 아닌 부모 역시도 많이 달라진 것이다. 그것은 세상이 그만큼 달라진 것임을 반영해주는 것이리라.

지금은 부모가 부모 노릇하기도 어려운 세상이라니와 자식이 자식 노릇하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그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책임이라면 책임이랄까 대학 공부까지만 제대로 뒷받침을 해주고 노후를 생각하기조차도 버거운 세상이 되었다. 어찌 부모만 그럴까. 자식들은 더욱이 부모에게 효도는커녕 자식 노릇하기도 버거운 날을 맞고 있는 것이다. 경쟁의 시대에서 작은 구멍 하나 뚫리지 않은 뻘뻘한 공간을 뚫고 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정신적 육체적 노력과 견딜과 기다

림으로 있어야 하는지 지금 세대 아이들은 부모들이 겪지 못한 또 하나의 난관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우리들 세대에서는 경쟁 사회라고 했지만, 그야말로 내놓아라 하는 대학을 졸업하면 어느 정도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길에서 입지를 세울 수 있었다. 이제는 그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물론, 어느 때나 자신이 갖춘 실력이 최우선이긴 할 테지만, 그 실력만으로는 10년 20년 후의 자신을 보장받을 수 없기에 더욱 조바심이 이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고 그것도 모자라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세 아이를 키우며 많은 생각과 마주한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에게 그들의 진로에 대해 말해주기 어려운 시기임을 알기에 말이다.

요즘은 시부모님의 노후 생활을 보면서 참으로 많이 배운다. 올해로 팔순을 맞이하신 그분들 역시 세 자녀를 그야말로 내놓아라 하는 대학을 졸업시키고 자신들의 길에서 훌륭하게 자리매김하며 삼 남매 모두 오십 줄에 올랐다. 어느 어른들 같으시면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 어른들은 자식에게 단 한 번도 손을 내

미신 일이 없으시다. 그저 당신이 절약하며 생활에 맞게 살고 계신 것이다. 때로는 자식으로서 부끄럽고 송구스럽기 그지없다. 하지만 자식인 우리도 세 자녀를 대학 졸업시키느라 여유 없이 바쁘게 살아왔으니 그저 송구한 마음뿐이다.

시부모님을 보면서 마음에 명심하게 된 것이 하나 있다.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에게 무엇인가 바라지 말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 아이들의 세대는 백세 세대의 부모들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거나 책임질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다. 자신들의 노후마저도 걱정해야 할 시대가 된 것이다.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요즘은 그런저런 앞으로 다가올 노후의 문제들이 남의 일이 아님을 알기에 조금씩 차근차근 대책을 생각해 보곤 한다. 자식에게 짐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담스런 존재는 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삶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크고 거창해 보이기도 하다가 때로는 너무나 작고 보잘 것 없는 가엾은 존재라는 생각도 든다. 삶이든 인생이든 무엇인가 너무 바라는 것이 많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섭섭함도 큰

것이리라. 부모든 자식이든 서로 해줄 수 있는 만큼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서로 할 수 없는 처지와 형편에서 버겁게 무엇인가 해주고 나면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라 허해질 수 있는 까닭이다. 삶에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자신에게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인지하며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싶다.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어찌 같을 수 있을까. 부모는 살아온 세월 속에 당신들이 경험하고 겪은 수많은 일들을 통해 지혜를 얻어 자식들에게 나침판의 역할과 요즘은 네비게이션 역할을 해주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요즘처럼 빨리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세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다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간다. 때로 아이들은 그 얘기를 잔소리쯤으로 받아들이는 때가 있다. 이럴 때 속이 많이 상하지만 이제는 내색하지 않는 지혜도 배워간다. 그것은 어쩌면 세 아이와 함께 마주하는 시간이 줄어들까 싶은 엄마의 마음일지도 모를 일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선배에게서 온 연하장**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가사를 온전히 외고, 제대로 따라 부를 수 있는 유행가는 매우 드물다. 자주 부를 기회도 없을 뿐더러, 너무 오래됐다. 하지만, 이 노래는 아직도 웬만큼은 따라 부를 수 있지 싶다. 곡이 쉬운건가? 어머니스의 편지다.

말 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 흐르며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노래 보~낸다. (편지, 어머니스)

내 선친의 편지 시작은 항상 같았다. '너는 잘 있느냐. 네 처는 다 무고하냐. 네 어머니는

여전하다.' 끝 마무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모든 일에 서둘지 마라. 몸 성히 잘 있거라. 네 편지를 기다린다.' 한창 공부 할 적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봉함엽서를 보내 주셨다. 평생 글 한 줄 남기지 않으신 아버지는 내게 수 십통의 편지를 남겨주셨던 거다. 언젠가는 정리 해야 할텐데, 게을러 차일피일 미룬다.

몇 일 전이다. 때 늦은 성탄절 카드를 받았다. (배달사고는 아닌데, 어찌저찌 돌고 돌다가 내게 배달된거다.) 전 직장상사였고, 내 멘토인 양반이다. 카드봉투를 뜯어내면서, 작은 봉투가 동봉되었음을 봤다. 스타벅스 카드였다. 그의 곱게 쓴 덕담도 잊지 않았다. 스타벅스 커피 향내보다 더 진한 선배의 향내를 맡았다. 내가 읽은 그의 쓰여진 목소리다. '누구누

구야, 넌 잘하고 있다. 올 한해도 행복해라.' 옛 스승님이나 한참 선배에게서 받는 편지나 연하장은 황송하다. 차마 뜯어 보기가 민망한 게다. 먼저 안부편지 한줄 적어 보내지 않은 터라면, 죄송한 마음이 감사한 마음보다 앞선다는 말이다. 지도 교수님은 해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 주셨다. 그의 성탄절 카드엔 색종이 편지를 동봉한다. 편지는 모든 그의 제자나 친구들에게 보내는 일년 기록이다. 그런 그가 내게 자주 말하곤 했다. 만면에 웃음을 보이면서, '헤이 김보. 치열 업! (김보는 내 이름 김을 변형해서 부르던 애칭이다. 그만이 그렇게 불렀고, 내가 그에게만 허락했다). 그의 크리스마스 카드엔 그렇게 쓰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읽혔다. '헤이 김보, 힘내.'

사람이 늙으면 눈물샘도 덩달아 마르는 건 아닌가 보다. 자주 눈물이 난다. 겨울 날씨 탓만은 아닐진대, 선배들에게서 연하장을 받고 나면 더 목이 칼칼해 진다. 감사함, 송구함. 골고루 섞여있다. 이제 내 스스로에게 편지를 보낼 시간이다. '김씨, 작년 한해 수고했네. 올해 한해도 수고하게나.' 한마디 덧붙인다. 사랑하는 아우 후배들아, 너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미안하다. 받은 만큼도 제대로 전해 주지 못하는구나.

다시 새해를 맞은 당신. 치열 업!!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창세기 43:30)

보스톤코리아

KOREAN GUIDE & MAP

# 보스톤 가이드 앤 맵



## 이제 미국과 중국 고객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할 때입니다!

###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이 곧 출간됩니다. 이 가이드 앤 맵은 미국 및 중국 학생, 관광객 등을 타겟으로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등에 전격 배포될 예정입니다.

####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내년 2월 발간하여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되는 가이드 앤 맵은 여러분의 매출을 한단계 높여드릴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가 선정하는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의 베스트 업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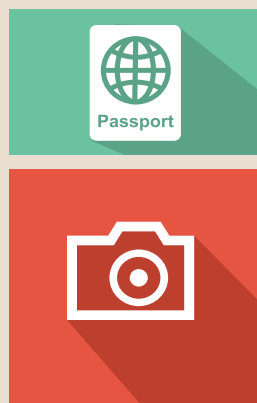
####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이제는 더 많은 미국, 중국, 아시안 고객들을 한국 업소로 불러들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선택이 내년 매출을 좌우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66 해방 후 무림武林의 대가(大家)들(6)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이교윤 관장이 창설한 한무관韓武館은 지도관의 이종우 관장과 그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한국체육관의 부관장인 이상목의 중재로 한국체육관에서 지도를 중단하고 서울 종로구 창신동 강문고등학교 뒷편 공터에 한무관 간판을 내걸고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것이 한무관이 생기게 된 계기이다. 조선연무관의 창설자인 전상섭 관장이 한국전쟁 와중에 납북되면서 조직의 체계가 흐트러지게 되고, 윤쾌병이 이종우와 함께 지도관을 창설하였다. 그리고 조선연무관 출신의 이교윤이 한국체육관에서 당수도를 가르치면서 이종우와 갈등이 생겼다. 그리고 이교윤은 창신동에서 고행의 길을 걸었다. 도장이라곤 하지만 공터에 천막치고 가마니 깔고 수련하는게 고작이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관세館勢는 날로 번창하였다. 마침내 1969년에는 꿈에 그리던 어엿한 중앙도장을 서울 왕십리에 마련하였다.

다음은 9대 문파의 마지막으로 정도관을 살펴 본다. 정도관正道館은 이용우가 창설하였다. 이용우는 청도관 출신으로 1954년 서울 서

대문 로터리에서 중앙본관을 개관하였다. 정도관의 모체관인 청도관과 특별한 마찰없이 개설했다는게 타 신향관의 파생과정과 다른 점이다. 정도관의 중앙도장 규모는 약 100여평이었지만 이용우가 다른 도장과 차별화된 독특한 수련 방법으로 지도하면서 입소문은 장안을 순식간에 휩쓸었다. 한 때는 수련생들이 너무 많아서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정도관의 관훈은 '나는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무도인이다.' 이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부터 마산, 울산, 창원, 목포, 김제 등지에 지관을 개관하면서 관세를 확장했다. 정도관의 초창기 수련생으로는 장용갑, 김재기, 김기동, 오부웅, 주계문, 박태현 등이다.

해방 이후의 이른바 현대식 도장의 창설 배경과 각 문파의 태동과 형성을 살펴 보았다. 태권도(당시는 태권도라 부르지 않았다) 초창기 5대 문파는 청도관, 무덕관, 조선연무관(지도관의 전신), YMCA 권법부(창무관), 그리고 송무관이다.

이 5대 문파의 뿌리를 보면 청도관의 창설자인 이원국과 송무관의 창설자인 노병직은 일본에서 송도관松濤館(쇼도칸)의 창시자인

후나고시 기친船越義珍으로부터 공수도(가라테)를 전수 받았다. 무덕관 창시자 황기는 만주에서 중국 권법을 먼저 접한 후 독자적으로 무예도보통지를 연구하였다. 조선연무관의 창시자 전상섭은 일본유학 시절 공수도를 배웠다. 그리고 YMCA 권법부(창무관)의 창시자 윤병인은 어린 시절을 만주에서 보내면서 그곳에서 중국무술 '주안과' 를 수련했고, 또 일본으로 유학가서 가라테를 수련하였다. 이 5대 문파의 수장들, 즉 해방 후 초창기 우리나라 현대 무술의 토대를 마련하고 대중화에 크게 공헌한 다섯명의 관장들은 한국전쟁 중 행방불명(납북)된 전상섭과 윤병인을 제외하고 청도관의 이원국, 무덕관의 황기, 송무관의 노병직 등 이른바 관의 '원조' 모두 다 미국으로 이민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내려놓고 후진들로 하여금 가꾸게 한뒤 미국에 이민하여서도 모두 새롭게 개척하여 미국에서도 태권도로 하여금 국위를 선양하는데 일생을 바쳤다.

그리고 5대 문파에 이어 9대 관에 속하는 오도관의 창시자 최흥희는 태권을 사사한 뒤 일본에서 가라테를 수련하였다. 그리고 1954년

군사에서 오도관을 창설할 때 청도관 출신의 남태희의 역할이 지대했다. 그리고 오도관은 청도관과는 '형제관' 으로 교류하였다. 이 오도관의 관장 최흥희는 후일 캐나다로 이민하였고, 남태희는 미국으로 이민하였다.

다음은 강덕원이다. 강덕원은 YMCA 권법부에서 수련한 흥정표와 박철희가 창설했다. 초대관장은 흥정표가 맡았으며, 그들은 이남석의 창무관과 함께 YMCA 권법부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YMCA 권법부와 뿌리가 같다.

그 다음 한무관은 이교윤이 창설했다. 이교윤은 한무관은 지도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조선연무관에서 지도관과 한무관이 파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역시 뿌리는 지도관과 같이 전상섭의 조선연무관이다.

마지막으로 정도관은 청도관 출신인 이용우가 창설하였다.

그 외에도 1950,60대를 거치면서 5대나 또는 9대 관의 지관/분관이 아닌 수 많은 군소관들이 생겨났다.

## 수건을 이용한 운동법, 복부 4cm 줄이는 마법의 수건 운동

(서울=뉴스1) 온라인팀 = 날씨가 추운 겨울철, 밖에 나가지 않고 수건 한 장으로 끝내는 운동법이 화제다.

지난해 8월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는 '이연희 님은꼴' 박초롱 트레이너가 출연해 수건을 이용한 운동을 소개했다. 이는 일명 '5분 코르셋 운동법'으로, 수건 한 장으로 복부사이즈 4cm를 줄일 수 있는 운동이라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박초롱 트레이너는 "복부 힘이 부족한 경우 플렉서 근육을 사용하여 과다수축이 된다"며 "복부 힘이 약한 경우 더욱더 자극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초롱 트레이너의 '5분 코르셋 다

이아트'는 무릎 끌어올리기, 파이크, 산오르기, 팔꿈치 밀기, 골반 돌리기, 런지 슬라이드, 발 들고 땅치기, 노젓기로 구성됐다.

이는 수건을 발끝에 두고 팔꿈치 펴기 자세에서 다리를 옆으로 끌어올리고, 양 다리를 교차로 접었다 폈다를 반복한 후 발끝에 두었던 수건을 팔꿈치 밑에 두고 팔도 번갈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것이다.

박초롱의 '코르셋 운동법'을 따라했던 개그우먼 홍윤화과 아이돌그룹 B.A.P의 영재는 운동 5분 만에 허리둘레가 각각 2cm, 7cm 줄어드는 효과를 봐 놀라움을 자아냈다.

soho0901@news1.kr



2014년 8월 SBS '스타킹'에 출연한 박초롱 트레이너

## 살 빼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 "밥 먹지 않은 아침 시간이 최고"

(서울=뉴스1) 온라인팀 = 하루 중 살 빼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

최근 뉴욕타임스는 "운동했을 때 살 빼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밥을 먹지 않은 아침 시간' " 이라고 밝혔다. 위장이 완전히 빈 '공복 상태' 에서 운동을 하면 다른 시간대에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체중이 불어나는 것을 막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벨기에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를 세 그룹으로 분류한 뒤 이들에게 6주 동안 평소보다 30% 더 많은 열량과 50% 더 많은 지방을 섭취하게 했다.

그룹은 다음과 같이 분류됐다. '1그룹' 은 과식하는 기간 동안 주로 앉아서 생활했다. '2그룹' 은 아침을 먹은 후 오전에 격렬한 운동을 했다. '3그룹' 은 아침밥을 먹지 않은 상황에서 '2그룹' 과 같은 운동을 실시했다. 6주 뒤 '1그룹' 은 살이 찌고 건강이 나빠졌다. 평균 6파운드(2.7kg) 정도 체중이 늘었고 비만의 원인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강해졌으며 근육에는 지방이 올랐다.

'2그룹' 은 평균 3파운드(1.4kg) 정도 체중이 늘었고 인슐린 문제도 나타났다.

그러나 아침식사 전에 운동을 한 '3그룹' 은 체중 변화가 거의 없었고 정상적인 인슐린 수치를 보였다.



살 빼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밥을 먹지 않은 아침 시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구를 연구를 진행한 벨기에 르벵 가톨릭 대학교의 피터 헤스펠 교수는 "체중 증기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침에 공복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이 같은 시간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오 내일부터 나도 아침에 줄넘기 해야지", "아침 운동이 최고긴 하지", "와 공복 아침이 다이어트에 가장 좋구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kijez875@news1.kr

휴람 제휴 이벤트



#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서울메디케어**  
서울메디케어는 연면적 1000평에 달하는 서부권역최고 최대수준의 **대학병원급 건강검진센터**입니다

서울메디케어 ·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검진 프로그램  
(수면대장내시경 포함 시 10만원 추가)

종류	남자	여자
휴람기본	<del>62만원</del> → 47만원	<del>78만원</del> → 59만원
휴람정밀	<del>120만원</del> → 91만원	<del>136만원</del> → 103만원
휴람VVIP	<del>304만원</del> → 228만원	<del>329만원</del> → 240만원

SEOUL MEDICARE [검진시간 안내] 평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토요일: 오전 8시 ~ 오후 1시 · 점심시간: 오후 1시~2시

휴람 제휴 이벤트

## 루트모발 이식센터

6명의 모발이식 전문의료진  
4개의 모발이식 전용수술실

휴람제휴 해외동포 '특별이벤트'

모발이식 5만원씩 할인  
수술후 세정제 3만5천원 Free  
생착률을 도와주는 EGF가 3만원 Free

절개	비용	비절개	비용	절개+비절개	비용
4000모	290만원	2000모	400만원	7000모	790만원
5000모	390만원	2500모	450만원	8000모	990만원
		3000모	500만원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 새미치과 특별할인

새미의 이벤트

오스템 임플란트 <del>150만원</del> → 120만원	무식제 라미네이트 <del>80만원</del> → 60만원 <small>*부가기치세별도</small>	오스템 미백 1회 20만원 <b>+1회 제공</b> <small>*부가기치세별도</small>
--------------------------------------	--	---

고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받으세요!  
새미치과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웃음을 찾아드립니다.

대표원장 이두형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동부병원 치과 과장  
- 원본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외래교수  
-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정회원  
- 대한구강보존학회 정회원

새미치과 임플란트 치아미백 치주치료 심미보철 예방치료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 에띠끄 에스테틱 특별할인

에띠끄 에스테틱이 특별한 이유!

럭셔리인테리어와 고급관리  
1:1 전문관리와 프라이빗 룸  
동안 미스 스킨 케어 마사지

이태리 최상의 브랜드 사용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관리사

스페셜 힐링 케어 - Facial care + Healing back care - 120 min <del>19만원</del> → 15만원	스페셜 힐링 스칼프 케어 - Healing scalp care + Facial care - 120 min <del>20만원</del> → 16만원	스페셜 슬리밍 케어 - Facial care + Slimming leg care - 120 min <del>25만원</del> → 20만원
전신 홀리스틱 아로마 케어 - 아로마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del>32만원</del> → 26만원	전신 고주파 케어 - 고주파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del>38만원</del> → 30만원	나이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은 있다. 에띠끄만의 특별한 관리로 사인의 흐름을 잠시 멈춰보세요



미국문의 보스톤코리아 617-583-2993  
이메일 huramceo@hu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 人

## 구(求)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義)를 구(求)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 마태복음 6:33

한국의 대법원은 29일 김상태 전 공군참모 총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상태 전 공군참모 총장은 우리 군의 2, 3급 군사기밀을 6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미국 군수업체에 넘겨주고 25억원을 받아 챙겼단다. 밝혀진 것만.

이른바 군피아(군대 마피아)로 변신한 김 전 총장이 유출한 기밀 가운데는 장거리 유도 미사일 도입계획 등... 적에 알려지면 우리 군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984 군에서 전역한 김상태 전 공군참모 총장은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과 주(駐) 대만 승진기술을 설립한 후 F-16 전투기 등을 생산한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 과 무역대리점 계약을 체결, 2004년부터 우리 군사기밀을 팔아 넘기기 시작.

유출된 기밀 중엔 장거리 유도 미사일과 중거리 GPS 유도키트,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야간표적식별 장비의 증강목표 등... 적에게 노출됐을 때 우리 군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총장은 자기 회사에 입사한 예비역 대령 공군 후배 이 모씨와 우리 공군의 군사무기 도입계획 영문회의자료까지 작성, '록히드마틴' 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6년여 동안 12차례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겼다.

대법원은 “경제적 이익을 내세워 군사기밀을 누설한 점이 인정된다” 며 김상태 전 공군참모 총장에게 징역 10월에 2년 집행유예를 확정했던 것.

하늘을 날으며 '하늘 나라' 를 생각 않고 비행기술을 '돈 버는 일' 에 집착해온 “하늘 총장” 의 앞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

는 일에 열중했었다면...

군 참모 총장은 특정 범죄 기중처벌 법도에 외인가? 여론은 이런 처벌로 군부의 비리를 막을 수 있다면 빛나간 발상이란다.

임신한 아내를 남겨두고 뺑소니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이른바 “크림빵 아빠” 사고와 관련, 네티즌들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네티즌들은 흐릿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 용의차량의 차종과 번호 일부를 확인까지 했다.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강모(29)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였다.

당시 강 씨는 화물차 운전일을 마치고 임신 중인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서 집에 가던 길,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택시 기사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던 것.

강원도 한 사범대학을 수석졸업한 강 씨는 지난해 10월 결혼했고 임용시험을 준비 중이던 그는 아내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던 것.

사고 당하기 10분 전쯤 임신 7개월인 아내에게 전화로 “당신이 좋아하는 케이크는 못 사고 대신 크림빵을 샀어. 미안해. 그래도 우리 새별(아기의 태명)이한테 만큼은 열심히 사는 훌륭한 부모가 되자” 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청주 흥덕 경찰서는 사건 당일 인근 CCTV에 찍힌 용의차량의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화면이 흐린 탓에 특별한 단서를 못 잡았다.

지난 14일 강 씨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분노한 네티즌들이 용의차량의 추적에 나선 것.

흥덕 경찰서는 22일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나 단서를 제공한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와 별도로 강 씨 유족도 현상금 3000만원을 내걸었다.

경찰관계자는 “해당 차종이 워낙 흔한 차종이라 용의자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청주에 등록된 해당차종을 모두 확인해서라도 꼭 용의자를 밝히겠다” 고.

求구: 索也乞也색야걸야: 구할 구. 이 求자를 풀어 보면 3자로 합성돼 있다. 첫 째는 十(열십 자) 둘째는 水(수) 물. 그리고 마지막은 有所絶止 | 而識止 유소절지 신이식지. 표점 또는 '구절 짝을 주' .

쉬운 말로 풀면 '정지(Stop)' 를 뜻한다. 무엇이? '예수님의 사랑' 을 그리는 십자가의 물(또는 피)가 '정지' 신호라는 것.

무엇을 정지하는데? 인간의 죽음을! 해서 求자의 '十水' 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흘린 피(血)를 인간의 영생수(永生水)로 대변하는 것. 몸이 죽지 않고永生한다는 뜻. 바로 이를 위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영혼의永生을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명백히 말씀하셨다.

“살리는 것은 영(靈)이니 육(肉)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靈이요 생명(生命)이라:The Spirit gives life;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they are life.” - 요한복음 6:63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성령님' 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기 위해 求자에 점(•)이 찍혀 있는 것. 해서 이 (•)이 성령(聖靈)님을 대표한다.

예수님이 죄 없이 지는 十를 아버지 하나님이 마시게 하는 잔(杯), 죄 짓지 않았는데도 죄(罪) 지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사(代死)하신 것. 이것이 곧 모든 교회들이 十를 내걸고 예

배하는 까닭이다.

예수님이 이 十의 “하나님 사랑 | 과 이웃 사랑—” 을 직접 증언, 십자가를 지신 것. 자신의 말씀을 자증(自證)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 The second is this: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ere is no commandment greater than these.”

하여 예수교가 첫째 하나님 사랑(一)과 둘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一), 이 두 사랑이 합쳐 十을 표시하는 것.

求에 물(水)이 들어간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피(血)를 물로 표시하신 것.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Indeed, the water I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 요한복음 4:14

求 속에 포함된 물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의 영생수(永生水), 곧 十에서 흘린 우리 죄인을 구속하는 천국생명의 원천(源泉)이다.

이 샘물을 마시고 몸은 죽고 영생하는 비결을 求하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없다. 해서 求하는 것의 종착역은 하늘나라의 주인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의 의(義) 뿐이라는 것!

### 미국 최고의 언론지 TIMES 선정 2014년 베스트 발명품 연예인만 셀카?

아니아니- 나도 셀카 찍고 싶어요! 혼자서 얼쌍각도- 찰칵! 연인끼리 놀러가서- 찰칵! 친구들끼리 놀러가서- 찰칵!



- 2015년 최신 셀카봉!
- 리모컨이 본체에 달려있는 버튼 일체형
- 싼 셀카봉 믿지 마세요!

**최고급**  
스마트폰 글래스 스크린 프로텍터 Japanese Glass

특수 가공 두께로 0.4mm의 두께로 쉽고 간단하게 부착, 일반 필름보다 3배 강한 강도로 바닥에 떨어뜨려도 액정화면을 보호해 드립니다.

대리점 문의: 213.545.4334

최한가격 \$29.99

구입 문의 617-955-9112

연말연시 최고의 선물용품  
방송으로 소문 난 그 제품!  
▶무한도전 ▶나혼자 산다 ▶꽃보다 청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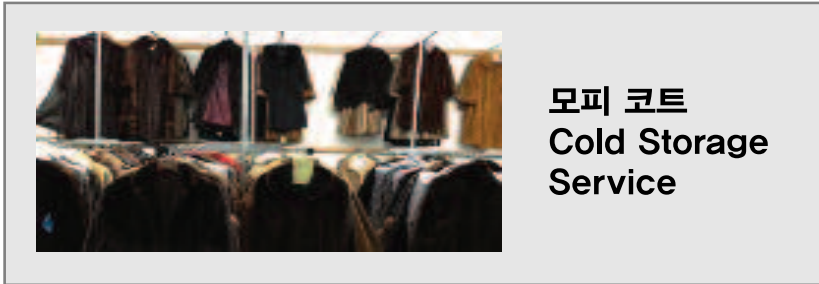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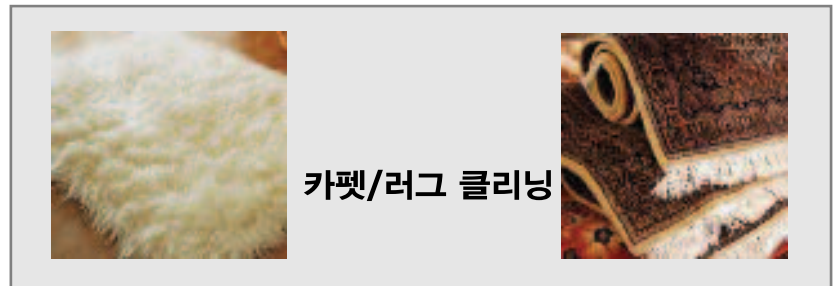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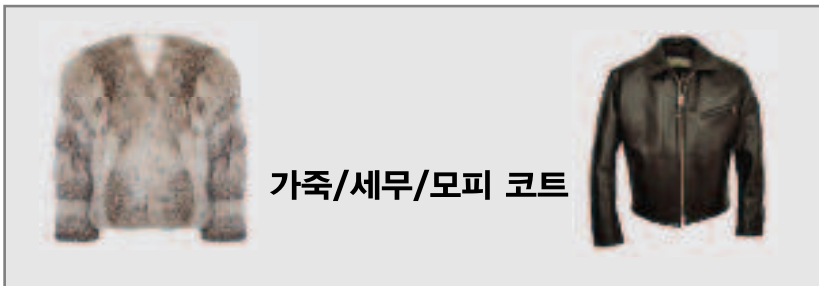
# International Leather Care Corp.

미동부 최대 규모의 가죽/카펫 전문 클리너 **SINCE 1999**

저희 I.L.C.C가 메사추세츠, 뉴햄프셔에 계신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단시간내에 많은 고객님들에게 서비스를 해드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어려운 경기지만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발전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저희 I.L.C.C 는 15,000sq.ft. 규모와 그동안 세탁 경험을 토대로 다른 세탁업체로부터 만족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오래 동안 연구하여, 이제 새롭게 정의된 기술과 장비로 이 업계에 선두에 있음을 확신하며,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다립니다.  
 귀 업소의 가죽, 부츠, 카펫,세무,모피 코트, 카펫, 외딩가운 등의 모든 세탁과 Cold Storage를 믿고 맡기십시오. **좋은 Quality 와 신속한 Delivery 그리고 합당한 가격**으로 끝까지 고객 여러분들의 선택에 보답해 드릴 것입니다.  
**한번 맡겨 보십시오! 결정의 그 순간...**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될것입니다. 귀하의 비즈니스 동반자 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보다 좋은 서비스로, 성실히 도와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 JACKET \$20
- PANTS \$18
- COAT \$27
- UGG BOOTS(Reg) \$16 / (Large) \$18
- RUG(Reg) \$1/ sq.ft.

**모든 종류 옷 수선 가능**



**International Leather Care Corp.**

393 S. Franklin St. Hempstead, NY 11550  
 Tel: 516-292-5810, Fax: 516-292-5812  
 E-mail: ilcccleaners@gmail.com

**www.ilccny.com**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67)

# 새해에 결심하는 투자 기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은 6년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3년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인덱스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32%를 기록했으면 작년(2014)에도 1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반 투자자는 이러한 수익률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록적인 수익률을 받기 위해서 제대로 하는 기본적인 투자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봅시다.

### \*저축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돈이 없으면 투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그마한 돈이라도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25살에 \$1을 9% 이자로 투자하면 35살에 두 배가 됩니다.

투자하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학자금 마련 혹은 은퇴를 위한 투자라면 장기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면 몇십 년 후에는 커다란 목

돈이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장기간 꾸준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조언

투자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크게 나누어 다음 세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스트리트, 주변에 있는 친지, 그리고 학교나 경제 연구소입니다.

첫째, 보험을 투자라고 설명하는 보험인, 저축을 무료로 제공하며 금융상품을 파는 사람, 여러분에게 돈을 부풀려 준다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투자자로부터 받는 커미션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제대로 된 투자 조언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둘째, 골프 친구, 장인, 장모, 회사 동료 등 주위에서 만나는 모두를 말합니다. 투자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대부분이 주식 전문가(?)로 변합니다. 투자 성공 사례가 끊임없이 이어 집니다. 그러나 그 속 내용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한 때 한

순간 어느 한 투자가 잘 될 수는 있지만, 전체 투자 결과를 볼 때는 실패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학교에 있는 교수들의 투자 조언이나 투자 연구 결과 발표문입니다.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투자가 제대로 된 결과를 낳았으며 실패한 투자였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표합니다. 대학 교수는 이러한 결과로 돈을 벌지 않습니다. 어떠한 투자 방법이 제대로 하는 투자인지를 조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자산분배

일반 사람들은 성공하는 투자는 좋은 종목과 투자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자 수익률의 90%는 자산분배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는 학교나 경제 연구소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접할 기회가 없을

뿐입니다.

### \*투자 위험성

일반 투자자는 투자하며 수익률을 먼저 기대합니다. 그러나 투자 수익률보다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투자 위험성입니다. 투자 종목마다 포함하고 있는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였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가 받는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위험성이 많은 투자 종목도 조심해야 하지만 투자 안정성만 생각해서 현금이나 CD에 투자하는 것도 투자 위험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돈의 가치가 분명히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 \*과거 높았던 수익률

일반 투자자가 실수하는 투자는 과거 수익률이 높았던 투자 종목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의 문제점은 같은 종목이 미래에도 높은 수익률을 낸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투자 종목 수익률을 검토해 보면 종목마다 매년 달라짐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대박이나 요행을 기대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인출(Distribution) 계획

몇 십년 동안, 결과가 어찌 되었든, 어떻게 투자하는가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투자하는 만큼 어려운 일은 은퇴 후 생활비를 어떠한 식으로 마련하는가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보다 더욱 어려운 것은 하산할 때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요즘 의학과 과학의 발전으로 생명의 나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은퇴한 후 몇 십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정해진 은퇴자금 목돈에서 생활비를 제대로 마련하는 계획이 꼭 필요함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 한국소득 미국에 신고해야 하나?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미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매년 이맘 때쯤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답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듯이 ‘Yes’ 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이런저런 이유로 신고를 누락한 교민이 있는데, 그간에는 누락된 한국 소득이 미국의 세금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아 큰 걱정을 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바마케어의 시행과 함께 2013년부터는 투자소득에 대해 3.8%의 메디케어 세금을 내야 해, 이제는 한국의 소득을 미국에 신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함

미국의 세법은 ①시민권자와 ②외국인(alien) 중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미국 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란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는 물론 지난 3년간 183일 이상 미국에 실제로 체류한 자(substantial presence test)-예를 들면, 취업비자(H Visa)나 투자비자(E-2 Visa)를 가지

고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한 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취업비자나 투자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중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국소득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등...의 모든 소득을 미국의 세법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중으로 세금을 내나요?

그런데 교민 중엔 ‘한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에 세금을 냈는데 왜 미국에 또 내야 하죠? 그럼 세금을 두 번 내게 되는데...’ 라고 의아심을 갖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의 소득이 한국과 미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소득세법에는 소득세 계산시 외국에 낸 세금 중 일정하고내 금액을 미국에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더라도 한국에 낸 세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로 미국에 낼 소득세는 없거나 있더라도 그 금액이 납세자가 생각하는 것 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 순 투자소득에 대한 3.8% 세금(3.8% tax on Net Investment Income)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어니

그런데 투자소득에 대해 3.8% 과세하는 메디케어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세금이 아닙니다. 이는 3.8%과세되는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소득세를 냈더라도 미국에 3.8% 메디케어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순투자소득에 대한 3.8% 메디케어 세금을 이란 소득이 \$200,000 이상인 고소득자(부부합산 신고자 및 미망인: \$250,000, 부부별도신고자: \$125,000)의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 - 이자·배당·임대수입·양도소득 등)에 대해 3.8%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임대수입 및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 중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소득에 대해 ①소득세와 ②3.8%의 메디케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소득세의 경우는 한국에 낸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미국에 낼 세금이 없을 수도 있지만, 3.8% 메디케어 세금(3.8% tax on Net Investment Income)의 경우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세액이 아니어서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자소득에 대해 미국에 3.8%의 메디케어 세금을 내야 합니

다.

### 신고 안 하면 가산세(penalties)가 부과되고,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도...

만약 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하여 세금을 적게 냈다면 미납세금을 기준으로 관련 가산세(penalties) 및 이자(interest)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신고한 후 3년이 지나면 오류 등으로 인한 과소납부한 세금에 대한 IRS의 과세권이 소멸되나, 아예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소득의 규모나 사기(fraud)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6년으로 연장되거나 소멸시효가 없어서 영원히 IRS의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함

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가 해외에 일정액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 FBAR 규정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6월 30일까지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액 이상의 해외금융자산이 있으면 FATCA규정에 따라 해외금융자산을 세금신고시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앤티비( *enjoy & TV* )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 Welcome, **TBO**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 무제한 시청 월 \$37.99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과거사: 용서 받을 수 있을 때 사과하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9일 유대인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찾았다. “일본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연설도 행했다고 한다. 이 정치적 쇼는 별다른 감동을 남기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정작 일본의 전쟁범죄라는 자신들의 과거사에 대해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란듯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망언을 했다가도 “ 가슴아픈 일이다. (일본의 군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 고노담화를 인정하지만, 위안부 문제가 외교, 정치문제로 변질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아리송한 입장을 내놓기도 한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내걸고 매주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어진 수요집회가 (2015년 1월 29일부터) 1163차례나 열렸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일본정부의 사과와 법적 배상은 없었다. 대신 고령의 할머니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셨다. 1월 2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분이셨던 황선순 할머니께서 타계하시면서 현재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총 54분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더 늦어진다면, 가해자가 용서받을 기회도 피해자에게 남은 상처를 치유할 기회도 영영 얻지 못할텐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일본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는 적 이 있었다. 1980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2차대전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명했던 Executive Order 9066에 의해 미국내 일본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를 조사하게 하고, 피해자 중 생존자들에게는 1인당 2만달러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었다. Executive Order 9066은 무엇이며, 왜 뒤늦게나마 사과가 필요했을까? 약간의 맥락이 필요하겠다.

미국은 세계 제 2차 대전 발발전과 개전시기 “중립”을 표방했다. 그리하여 스페인 내전 시기, 국제사회에서 파시즘의 지원을 받는 프랑코가 독재정권을 수립하기까지 공식적으로 침묵했다. 그러나 미국은 서서히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다.

전쟁 중인 나라에는 어떤 군수물품도 판매하지 않겠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고쳐, 군수물품 판매대금은 현금으로 하고 배달 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캐시-앤-캐리 (Cash and Carry) 정책 (1939)으로, 미국은 민주주의를 위한 대형 무기창고 (Great Warehouse)가 되겠다는 루즈벨트의 연설 (1939)로, 그리고 이웃집에 불이 났을 때는 일단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호스를 빌려주어야 한다는 비유를 들어, 군수물품값은 나중에 받더라도 연합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랜드 앤 리스 (Land and Lease) 정책 (1941)으로 점점더 전쟁에 근접해갔던 것.

어쨌거나 2차 대전이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전쟁”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일본으로부터왔다. 1941년 12월 7일, 일본 해군 비행기가 하와이

의 진주만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 공습을 가하자, 다음 날인 12월 8일 미국이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면서 미국이 2차 대전 참전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이 주적이었던 1차 대전 때는, 오케스트라에서 베토벤이나 브람스를 연주하는 것도 반애국적으로 비쳐질까봐 꺼려지고, (독일의 합부르크를 연성시키는) 햄버거는 “리버티 샌드위치”라는 이름으로 고쳐 부를 정도로 반독일 정서가 컸다. 그러나 2차 대전 당시에는 역시 적국이었던 독일이나 이탈리아에 비해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훨씬 컸다.

1941년 12월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이듬해 2월 19일, 프랭클린 루즈벨트 행정부는 서부 연안에 거주하던 일본계 미국인들의 재산을 동결하고 10개의 단 수용소로 강제 이주시키는 행정명령 9066 (Executive Order 9066)에 서명했다.

2차 대전 무렵, 하와이에 거주하던 약 15만명의 일본계 미국인들을 외에, 미국 본토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계 미국인과 이민자들은 11만명에서 12만명 가량으로 거의 100%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오레곤, 워싱턴 등의 서부 해안지역에 정착해 있었다. 즉, 행정명령 9066은 본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 거의 전체에 영향을 끼친 결정이었다. (하와이 지역 일본인들 중에는 만이 천명 정도가 강제 수감되었다).

물론 이 결정에는 일본계 미국인들이 일본군

의 스파이 노릇을 하고나, 혹은 일본군과 협력하여 미국을 공격하든지, 파업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표면적인 이유로 존재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진주만 공격에 대한 보복심에, 인종주의와, 이민자로서 부를 축적한 일본인들에 대한 집단적 질투 등이 뒤섞인 결정이기도 했다.

어쨌건 강제 수용되었던 일본인들은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풀려나게 되었다. 이들 중 25%는 이민 1세대, 75%는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로 대부분은 미국 시민이었다. 게다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적국인 이탈리아계 혹은 독일계 이민자가 스파이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된 사례는 없었다. 이 때문에 일본계 미국인 중 한 명인 코레마츠 (Korematsu)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행정명령 9066이 헌법에 명시된 미국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코레마츠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국가가 위급사항일때 일본계 미국인 개인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는 근거에서.

1980년 미국정부의 일본인 이민자들에 대한 “사과”는 충분히 늦었지만, 피해자 중 생존한 누군가는 정부를 용서할 기회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와 배상도 용서받을 기회가 있을 때 이루어지길 바랄뿐이다.

###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미국 대학, 특히 명문대 입학 경쟁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한국 유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포함해 최고 수준의 명문대 진학은 최상의 스펙을 갖추고도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워지는 추세다. 대학 입학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대학 입학을 위한 Prep School (College Preparatory School) 입학에 대한 관심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미국의 여러 보딩 스쿨 및 데이 스쿨은 이미 유명해진지 오래다. 보스톤의 Roxbury Latin이나 근교의 Phillips Academy 등을 필두로 하는 명문 사립 고등학교들은 아이비리그에 가장 많은 학생을 보내기도 유명하다. 경제지 Forbes와 Wall Street Journal의 보고에 따르면 아이비리그 진학률이 가장 높은 50개 학교 중 공립학교는 단 2군 데였다.

## 명문 사립고등학교의 오해와 진실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Phillips Academy, Andover의 2010학년도 졸업생들의 대학 입학 성적을 살펴보자. Brown University 11명, Columbia University 8명, Cornell University 3명, Dartmouth College 8명, Harvard University 12명, University of Pennsylvania 9명, Princeton University 6명, Yale University 17명으로 그 해 졸업한 학생 282명 중 아이비리그 입학생의 비율은 38%였다. 게다가 Johns Hopkins University 6명, MIT 5명 등 다른 최고 명문대 입학 성적도 뛰어나다. 화려한 대학진학률을 보여주니 1년에 \$45,000이 넘는 학비에도 우수한 지원자들은 넘쳐나고, 경쟁 또한 명문대 못지 않게 치열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Phillips Academy, Andover의 합격률은 약 12% 정도로 아이비리그 대학 합격률과 비슷한 수치다.) 대학 지원에 SAT/ACT를 응시해야 하듯 사립 고등학교에 지원할 때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인 SSAT 혹은 ISEE를 치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득점, 높은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지원 에세이, 교사의 추천서, 운동이나 음악, 미술 활동 등의 과외 활동을 포함한 이력서에다가 엄격한 인터뷰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학비가 비싸고 시설이 최고급이라고 해서 명문 사립고등학교에는 부자집 학생들만 다니는 것은 아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5-40%의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학교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고 있다. 사실 명성이 나있는 학교일수록 졸업생들 및 사회

명사의 의한 후원금의 규모도 크고, 학교가 보유, 관리하는 학자금 펀드의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학생의 학업 능력에 따라서 장학금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재정 보조가 필요한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Need-based Grant의 유형이 더 흔하다. 다만, 아직까지는 많은 사립 고등학교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지불 능력을 입학 사정시 살펴보고 있다. 물론 재정 보조 필요 여부와 입학 사정을 별개로 취급하는 Need-blind인 학교들도 있지만 비슷한 학업 능력의 학생을 저울질 할 경우 재정 능력이 되는 학생을 선호하는 학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사립 고등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은 후에 재정 보조를 신청하면 학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명문 사립고등학교의 합격률은 아이비리그의 수준과 맞먹는다. 학생들이 더 어린 나이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 과정이 더 힘들 뿐더러 입학 사정관들이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도 명문대와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수한 학생이라도 명문 사립고등학교 합격을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필자가 담당했던 학생 중에 한국의 유명 특목 중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한 학생이 있었다. 경쟁이 치열한 한국 학교에서 수석이라는 이력을 가지고 너무나도 자신만만해 하던 학생, 그리고 그 학생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학부모였기 때문에 필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Top 10 보딩 스쿨 중에 자신이 꼭 입학하고 싶은 학교 단 2곳만 지원했다. 결과는 2 학교 모두 '대

기 판정'을 받았고 처음 실패를 경험한 학생과 학부모의 실망은 너무 컸다. 결국 이 학생은 단순히 시험 성적이나 학업 능력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좋은 사례로 남았다.

반대로, 최고 명문 사립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명문대 입학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도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명문 사립고 입학이 명문 대학교 입학을 보장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학생, 더 높은 비율이 명문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뛰어난 학생들이 모인 환경 안에서 자신의 특별함을 더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경쟁 또한 그만큼 치열하다. 특히 여러 탑 사립 학교에서는 상대 평가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높은 내신 성적을 받기가 힘들고, 평범한 공립 고등학교에서라면 1, 2위를 다했을 학생들도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순위가 떨어지기 십상이다. 제한된 교과목 선택과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특별활동 속에서 우수한 이력을 쌓아야만 명문대 입학이 가능하다.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C) 2014.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a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www.pospay24.com



# POS 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노퍽 새 기계, 새 셔츠유닛, 부유한 동네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150,000, 소유자 32년만에 은퇴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10,000 매매가격 \$39,000

동양 그로서리, 연매상 \$415,000 다운타운 보스톤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100,000

보스톤 남쪽 아이스크림, 연매상 \$400,000 프랜차이즈

보스톤 고급 몰 커스텀슈얼리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 가격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 급매매, 연매상 \$120,000 매매가격 \$6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5,000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메인주 포틀랜드지역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가격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훌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 아카데믹 프로그램

#### SAT 1, 2/AP 수업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중심 수업  
상시 참여및 주말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 학업 과목 개인과외 가능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들  
개인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 2월Winter Break Program

기간: 2.14(토)~22(일)(9일간)  
3.14일 SAT시험을 대비한 집중반

#### SAT I Class

-각 파트별 균형잡힌 시간배분  
(CR:5일, W:2일, Math:1일)  
-실전문제풀이 중심의 수업  
-종일 프로그램(9:00-5:00)  
-실력있는 강사진

#### SAT II subjects class

Math IIC, Physics, Chemistry

\*5월AP,the national Spanish &Latin exam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인지도 가능

### 2016 College Process

대상: 11 학년  
모집기간: 2015년 2월 말까지

### 경시대회준비

수학 경시 준비(AMC/AIME)

외국어 경시 준비  
(Latin, Spanish, French)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  
(생물, 물리, 화학)